

## 제4회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기독교

▷일 시 : 2020년 6월 4일(목요일) 오후 3시 ~ 7시

▷장 소 : 광교산울교회(☎ 031-548-0021)

▷공동주최 :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주관단체 : 교회와사회연구소,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공동연대 : 가까운교회, 광교산울교회, 광주다일교회, 더불어숲동산교회, 사랑누리교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성지골주민교회, 에덴정원교회, 일산은혜교회, 전주열린문교회, 천봉산 희년교회, 청량교회, 청주쌍샘자연교회, 하늘샘깊은샘교회, 경주숲속생명의원, 새숨병원,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사회적협동조합 희년, 성서한국, 예장합동 순천노회 환경부, 인권시민실천행동, (사)인천 내일을 여는집,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한국그리스도교일치포럼, 한국생태마을공동체네트워크(KECN), 한국인터넷서브선교회(이상 28개 단체)



## ■ 제4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목차

05 / 전체 진행순서

06 / 초대의 글 / 이박행 목사(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총무)

07 / 격려사 / 송준인 목사(청량교회, 총신대학)

09 / Keynote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코로나19의 교훈 / 정원범 교수(대전신대 교수)

### □ 주제발표 1

13 / 문명전환: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 / 장윤재 교수(이화여대 교수)

25 / 코로나19 이후 대안적 순환경제 / 이승무 소장(순환경제연구소)

41 / 코로나19와 공공의료 개편 방향 / 임종한 교수(인하대 의과대학)

### □ 주제발표 2

47 / 교회목회 / 김의신 목사(광주다일교회)

54 / 사회복지 / 이준모 목사(내일을여는집)

60 / 해외선교 / 조 샘 대표(한국인터서브선교회)

78 / 환경선교 /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85 / 시민운동 / 김승무 대표(인권실천시민행동)

92 /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기독교 /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생명생태분과 입장문



## ■ 제4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순서 -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기독교’

### □ 생명신학포럼

1. 개회식 / 개회사 이박행 목사(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총무)  
환영사 이문식 목사(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  
격려사 송준인 목사(청량교회, 총신대학교)  
Keynote 정월범 교수(대전신학대학교, 교회와사회연구소 소장)  
기도 정현구 목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공동대표, 서울영동교회)
  
2. 주제발표 1 / 좌장 박준범 원장(새삼병원 암 통합의학센터)
  1. 문명전환 장윤재 교수(이화여자대학)
  2. 순환경제 이승무 소장(순환경제연구소)
  3. 공중보건 임종한 교수(인하대 의과대학)  
- 질의 응답
  
3. 주제발표 2 / 좌장 장현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1. 교회목회 김의신 목사(광주다일교회)
  2. 복지선교 이준모 목사(내일을여는집)
  3. 해외선교 조샘 대표(한국인터서브선교회)
  4. 환경선교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5. 시민운동 김승무 대표(인권실천시민행동)
  
4. 종합토론 / 사회 조성돈 교수(라이프호프 대표)
  
5. 석식 및 친교

## 초대의 글



이미 지구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증후들이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기후온난화로 지구는 기후 위기 단계를 넘어 지구 멸종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역습도 기후 온난화 위기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생태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듯, 코로나19 상황은 지구 생명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 방어기제를 작동시킨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와 기독교는 바알 신을 숭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과도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세계화는 피조세계에 무수한 탄소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되먹임 현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구촌의 주류적 '산업문명사회'에게 최후의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본적 문명을 성찰하고 삶의 방식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인류는 이런 일을 계속 겪게 될 것입니다.

잇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대형 감염질환 사태로 인한 모든 피조물의 공생공존이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적 규모로 역병이 자주 창궐하면 인간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경제사회적 토대 또한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면 우리는 발본적 차원의 성찰에 나서야 마땅합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지구화의 결함 특히 '공공 의료보건 시스템과 건강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생명권과 건강권에 폭넓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처할 방도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창조질서보존 차원에서 정치, 경제, 과학, 의료, 문화, 예술, 농촌, 도시 등 제 분야에 대한 공공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생명살림과 평화실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 일이 발생하기 전, 우리 인류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5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고 이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추었고 역설적으로 지구는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주어진 전 지구적인 안식을 통해 희년이 실현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의 지구(One Global)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건강(One Health)을 추구해야 합니다. 피조세계 안에서 창조주의 질서를 깨닫고, 그 안에서 모든 생명과 더불어 공생 공존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즐겨 받으실 참된 예배일 것입니다. 신음하는 지구촌에 참 평화와 안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구 돌봄의 생명지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20년 6월 4일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총무 이박행

## 격려사



# COVID-19 이후 시대의 예배

송준인 / 청량교회 목사

시편137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찬송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수금을 연주하며 찬송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과 유사하고 마음껏 찬송할 수 없는 상황과 흡사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조롱하며 시온의 노래, 곧 여호와께 드렸던 찬송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거룩한 찬송을 그들의 노래 개 감으로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음으로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잊는 것은 마치 오른손이 그 하던 재주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때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그리움을 상쇄하거나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22:5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CCM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바치러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다름 아닌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가 부르는 노래와 찬양을 듣지 않습니다. 아모스 5:23-24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

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하나님은 의인의 노랫소리와 비파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제 모여서 예배하기보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이지 말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때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 예루살렘 성전예배를 그리워하며 그들 나뭇의 예배를 드렸던 그들처럼 우리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 나뭇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사야1:19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즐거’ 순종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하는 심정은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에 즉시로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해도 그 마음 속에 불만과 푸념이 가득하다면, 그 자녀의 순종이 탐탁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믿을 만한 어떤 성구 사전을 보면, 진리(truth)를, “겉모양이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실”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속사람으로, 그리고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무쪼록 이 어두운 시대에 이번 제4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햇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격려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코로나19의 교훈

정월범/대전신학대학교 교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이전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고, 헨리 키신저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도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19가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런 판단은 그리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수만 명,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전염병들은 과거에 기존의 사회, 경제질서를 바꾸어 놓았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14세기 중반 유럽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의 몰락과 시민계급의 성장을 가져왔고,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옹긴 천연두(원주민의 90%가 목숨을 잃음)는 남미 원주민 문명을 무너뜨리면서 대항해시대를 불러왔고, 급기야 유럽의 금융 질서를 바꾸었다. 또한 1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 발병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영국은 몰락했고, 미국이 신흥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는 세계 경제 재편이 시작됐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는 말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앞에 전개되는 세상의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하는 것이다. 즉 세상의 변화, 문명의 변화가 과연 인류의 삶을 건강하고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변화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문명의 전환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장운재교수는 “언제 인류가 자신의 도덕적 결단으로 스스로 문명의 길을 바꾼 적이 있던가! 그럴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한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무려 35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어 왔던 제국주의 국가나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자본, 군산복합체 등이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존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잘못된 생존방식을 알아서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문명의 전환을 기대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언제나 이기적인 존재이기만 한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합리적인 면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는 “인간의 이기심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고, 인간의 합리성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은 문명전환의 과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즉, “인간의 이기심은 문명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인간의 합리성은 문명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인간은 위기를 만나 뭔가 긍정적인 세상의 변화를 일궈낸 사례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가보건 의료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브라질은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를 신설했으며, 태국은 90년대 말 불경기를 겪으며 공공 의료보험제를 시작했다.

이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생명문명으로의 일대 전환을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대역병을 포함하여) 코로나19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우리의 의식과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로, 코로나19는 인간의 잘못된 삶의 결과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가르쳐준다. ①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형성해온 문명은 살리는 문명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생태계를 착취하고 약탈하면서 지구의 생명체계를 파괴해온 제국주의 문명이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인간의 문명을 생명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② 코로나19는 인간의 문명이 생태계 파괴를 당연시해왔던 인간중심적인 문명이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풍성한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인간중심적인 문명을 지구중심적, 생명중심적 문명으로 바꾸어야 함과 동시에 인간의 안녕(행복)이 자연의 안녕(행복)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③ 코로나19는 인간의 문명이 무한 개발과 무한 성장, 무한 생산과 무한 소비,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문명이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④ 코로나19는 우리의 세계관이 영혼과 육체,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키고 후자에 대한 전자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온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이원론적인 지배 의식을 버리고 통전적인 평등의식을 가져야 한다. ⑤ 코로나19는 기독교가 지나치게 구원론만을 중시하고 창조론을 소홀히 여겨왔던 잘못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신학과 창조신학이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⑥ 코로나19는 기독교가 일상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회집예배만을 강조한 잘못이 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우리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사 1:13)는 말씀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잠 21: 3)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일예배의 소중함 못지않게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의 소중함도 인식해야 한다. ⑦ 코로나19는 일부 목회자들이 모든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인식하는 잘못이 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우리는 재난의 이유가 죄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재난도 있고, 크리스천이기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돌봐야 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재난도 있고, 재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재난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재난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⑧ 코로나19는 일부 목회자들이 코로나19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노력도 없이 무조건 회집예배만을 고집하여 다수의 확진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잘못이 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목회자는 신학공부 외에도 사회현상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을 하기 위한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⑨ 코로나19는 기독교가 모든 것을 교회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생명의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목회자는 교회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기독교의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 수행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하나님나라 신학(또는 공공신학)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로, 코로나19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주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었고, 또한 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② 일상의 소중함과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우쳐주었다. ③ 지구 세계의 모든 피조물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과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공존, 공생해야 한다는 의식의 소중함을 가르쳐준다. ④ 모든 피조세계는 단순히 인간에게 종속된 부속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는(롬 1:20) 인간의 동료피조물이라는 인식의 소중함을 가르쳐준다. ⑤ 공적 의료체계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었다. ⑥ 재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가르쳐준다. ⑦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씻기와 같은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쳐준다. ⑧ 한 사람의 감염은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지역감염, 세계감염으로까지 금방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세계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공의식, 공감의식, 연대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⑨ 바쁘게만 살던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멈춤(안식, 침묵, 명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 문명전환 :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

장운재 /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화들짝 뛰쳐나가 산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고 서서히 끓이면 위험한 줄도 모르고 헤엄치며 놀다가 물의 온도가 일정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죽는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비커 속의 개구리다. 개인이든 사회든, 갑자기 가해지는 외부의 충격에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즉각 대응하지만, 서서히 나빠지는 변화에는 둔감하기만 하다. 그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자연)가 심하게 병들었다. 111년 만의 폭염(暴炎)이라는 2018년의 불볕더위는 정말 살인적이었다. 그해 북극권의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었다. 그 결과 2만 년 전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한 번도 녹지 않았던 북극 최후의 빙하마저 무너졌다. 이후 뜨거운 사하라 사막에 38cm의 폭설이 내렸다. 인도에 강한 모래 폭풍이 불어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미국 워싱턴의 가을 기온이 영하 38도를 기록했다. 파키스탄 남부의 한 도시는 영상 50.2도를 기록했다. 우리의 지구는 더는 '건강한 지구'가 아니다. 인류가 지구 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가까이 와 있다. 호킹은 지금의 병든 지구가 보내는 간절한 호소들을 무시하면 앞으로 지구는 "섭씨 460도의 고온 속에서 황산비가 내리는 금성처럼 변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었다.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파리기후협정>의 목표가 달성돼도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는 암울한 연구결과까지 나왔다. 이제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기온이 21세기 말쯤에 가서 산업혁명 때보다 4~5도 정도 오른 뒤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 수준이면 재앙이다. 이 세기가 저물기 전에 우리 중 수십억 명은 죽을 것이고 그나마 견딜 만한 기후가 남아 있는 극지방에서 소수가 살아남을 것이다.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 제임스 러브록의 말처럼 "인간에게 착취당해온 지구가 이제 인간에게 복수를 시작한 것"이다. 그는 지구가 10만 년이나 지속될 수도 있는 열병에 걸렸다고 말했었다. 지금은 매우 위중한 시기다. 성서적으로 보면 노아의 홍수 직전의 시기다.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걸 후회하셨다. 창세기 6:5-8이다.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읽을수록 경이로운 본문이다. 먼저 5절은 고발이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이 자신의 의도를 거역했다고 결론을 내리신다. 바울이 개탄한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로마서 1:25) 하나님은 이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 그래서 7절에서 심판을 선언하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면의 생물을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하신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탄하신 세상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홍수 이야기의 시작은 5절과 7절에서 ‘고발-심판’이라는, 예언자들의 일반적인 메시지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5절과 7절 사이에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끼어 들어 있다. 6절이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구절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넉넉히 알려준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다. 한탄하다는 히브리어 ‘나함’으로 후회하다 라는 뜻이다. 근심하다는 히브리어 ‘나짱’으로 슬퍼하다 라는 뜻이다. 지금 하나님은 후회하고 슬퍼하고 계시다. 분노한 게 아니라 슬픔에 가득 차 계시다. 우리는 분노하는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과 멀어짐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부모와 같은 모습을 본다. 6절에 쓰인 ‘슬퍼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려준다. 의미심장하게도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와에게 별로 주셨을 때의 그 고통과 같은 단어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나님은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다. 사랑으로 지으신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사악하여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다. 5절의 ‘고발’과 7절의 ‘심판’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의 마음에 대한 기록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를 끝장내실까? 더는 사람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 세계가 바뀔 거라는 기대는 더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세계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수 있다. 하지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경탄해마지 않았던 자신의 창조 세계를 쉽게 포기하실까? 혹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바뀌면 안 될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세상에서 멀찍이 떨어져 세상 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이지. 성서를 보면 하나님은 상처 입기도 하시며,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며, 놀라울 만큼의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완전한 인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본문은 지금 위기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홍수가 아니다. 오히려 위기는 세계의 반항적인 속성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슬픔이다. 하나님의 깊은 심적 고통이다. 하나님이 지금 갈등하신다. 심판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하신다.

8절에 갑자기 노아라는 인물이 튀어나온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 전에 우리는 노아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노아가 돌연 나타난 것이다. 창조주와 피조세계 사이에 있는 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관계 속으로 갑자기 무대에 등장한. 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은혜를 입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서는 노아를 가리켜 그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창 6:9)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걸까?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노아가 ‘완전한 자’여서, 혹은 ‘의인’이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말이다. 성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누가복음 6:35)라고 선언한다. 실로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창 6:5)인 사람들에게도 햇빛과 단비를 주셨다.

그렇다면 왜 노아만 빼고 그들 모두는 물로 멸망하고 말았는가? 그 답의 실마리가 바로 8절에 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인지 오래 고민했다. 여러 다른 번역을 찾아 보았다. 공동번역은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이다. 아닌 것 같다. 새번역은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이다.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영어 성서들이 해결해주었다. “But Noah found grace(favor) in the eyes(sight) of the LORD.”(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 노아가 주어고 목적어는 은혜다. ‘찾았다’라는 동사는 능동태다. 이 번역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준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보았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연민을 보았다.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과 슬픔을 보았다. 당연히 쓸어버려야 하겠지만 후회하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을 읽었다. 노아는 그 고통과 슬픔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 요엘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았다.(요엘 2:13)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 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요나 4:2) 노아도 알았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그것을 보았기에 노아는 하나님 편에 섰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절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부르셨다. 그리고 방주를 짓기까지 120년을 옆에서 함께 하셨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새로운 존재’였다. 그는 그렇게 창조주와 피조세계 사이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관계 안을 불쑥 치고 들어온 것이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심판 이야기가 아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슬픔에 관한 이야기다. 반항하는 사춘기 자녀에게 부모들이 심한 고통을 느끼고, 내상(內傷)을 당하듯,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느낀 심적 고통과 좌절과 아픔의 이야기다. 한 노랫말처럼 하나님은 “마음 약해서” 자식과 같은 피조세계를 끝장내지 못했다. 원래 사랑하면 약해지는 법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손수 만든 세계에 분노한 나머지 자신의 권능으로 세상을 멸절하려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창세기 본문이 전해주는 이야기의 핵심은 구원이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 고쳐서 쓰는 법 아니라 했다. 그러면 속 시원히 다 쓸어버리면 될까? 속은 후련하겠지만 이내 더욱 큰 후회가 밀려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분노를 이긴다. 구원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원은 스스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와 온전한 자기희생과 겸손한 자기 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서의 핵심이다. 칼 바르트가 일찍이 성찰했듯이, 성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성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이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머나먼 길에 관한 이야기다. 변함없이 완악한 인간을 품어버리신 바보 같은 은총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 무서운 물조차 그것을 바꾸지 못했다. 영화 <노아>에서 러셀 크로우가 왜 신의 뜻이 인간 자체의 단종(斷種)으로 이해했는지 기억해보라. 그러므로 희망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인간의 성취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 자신의 변화에 의존한다. 홍수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화시켰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셨다. 홍수 이후 하나님의 선언이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창 8:21) 인간이 아무리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제 인간 때문에 다른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다. 노아가 본 것은 바로 이 은혜였다. 그래서 그는 방주를 지었던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에서 언제 인류가 자신의 도덕적 결단으로 스스로 문명의 길을 바꾼 적이 있던가! 그럴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문명의 전환? 누가 바꾼다는 말인가. 주체는 여전히 인간인가? 코로나 이후의(After Corona) 인간은 이전과 다른 인간일까? 화학적 백신이 나오면 인류는 신속하게 이전의(Before Corona) 삶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지금의 이 푸른 하늘과 먼지 없는 공기는 잠깐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둘 수 없다. 희망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다. 희망의 근거는 아무리 인간이 사악하고 세상을 파괴해도 그 때문에 모든 생명을 이 땅에서 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하나님의 약속뿐이다. 인간의 운명을 창조세계의 운명과 분리한 하나님의 결단이다. 인간의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뒤엔 사막이 있다. 모든 문명은 약탈이다. 인간 없이도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세계를 풍성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인간중심주의적인 관점에



서 벗어나야 한다.

작년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만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여기저기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많았다.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첫발을 내디디며 이렇게 말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도약(跳躍)이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인류에게 진정한 도약은 아폴로 11호가 아니라 아폴로 8호에서 이루어졌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약 7개월 전인 1968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이었다. 지구 바깥의 천체를 탐사한 최초의 유인 우주선 아폴로 8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궤도를 돌았다. 그리고 사상 처음 달의 뒷면을 보았다. 그런데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네 바퀴째를 돌고 있을 때, 우주 비행사들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 지구가 달 표면에서 떠오르는 것이었다. 자기들이 떠 나온 행성이 달의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참으로 경이로운 장면이었다. ‘해돋이’(Sunrise)를 보신 적이 있는가.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돋이’(Earthrise)를 본 것이다. 깊은 우주의 어둠 속에 작고 외롭게 떠 있는 푸른 지구를 본 것이다. 지금은 익숙한 모습이지만 당시엔 매우 충격적인 이미지였다.

지구 안에 사는 인류는 한 번도 지구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인류는 최초로 자신이 사는 행성의 모습을 보았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광활한 우주 안에 ‘창백한 푸른 점’(blue pale dot)으로 떠 있는 지구 위에 잠시 왔다 떠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날 크리스마스에 발행된 뉴욕타임스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저 끝없는 고요 속에 떠 있는 작고,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지구의 승객(riders)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객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왔다가 떠나는 존재일 뿐이다. 최희준의 노랫말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는 존재다. 인간이 위대한 줄 알았는데, 인간이 발붙여 사는 지구가 고작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구슬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인류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지구와 거기 탑승한 모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이다. 나는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적, 영적 도약이라고 생각한다. 문명의 전환은 이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충격과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무지(無知)가 문제의 근원이다. 인간은 스스로 잘났다고 으스스대나 사실은 눈이 멀어 있다. 그래서 시냇물이 제 몸의 핏줄이요 뒷산 숲이 제 몸의 허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산과 물과 푸른 대지와 하늘을, 그리고 거기 사는 모든 생명을 ‘남’으로 여기고 또 ‘남’이니까 함부로 대한다. 한글에 ‘나’와 ‘남’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보면 거기서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나’를 발음해보라. 입 모양은 활짝 열린 상태가 된다. 나는 이렇게 열려있는 동안 ‘나’이다. 그래서 내가 한 그루의 나무를 향해 나를 열고 있으면 나는 그 나무에게 ‘나’가 되고 그 나무도 나에게 ‘나’가 된다. 그런데 ‘나’라고 발음하다가 한번 입을 다물어 보라. ‘남’이 된다. 내가 나를 닫으면 ‘남’이 된다. 그리고 내가 남이 되니까 다른 모든 것도 따라서 남이 된다. 한 그루의 나무를 향해 내가 나를 닫아버리면 나는 그 나무에게 ‘남’이 되고 그 나무도 나에게 ‘남’이 된다. 우리는 ‘남남’이 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또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흐르는 강물을 끊어버리고 울창한 숲을 베어버리는 이유는 강과 산이 그들에게 ‘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닫아 자연을 ‘남’으로, 혹은 ‘타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철학자 김상봉의 말대로 우리가 관계 안에서 ‘서로 주체’가 되지 못하고 ‘홀로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자연을 ‘남’으로 여기지 않고 ‘나’로 여겼다면 우리는 저 아름다운 숲과 강과 대지를 결코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몸을 끊고, 막고, 파내는 것인데 어찌 그리하겠는가?

가끔 시골을 여행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다. 길을 묻게 되면 그 대상은 대개 어르신들이고, 대답은 늘 ‘이리로 쪽~ 가면 된다’라는 식이다. ‘얼마나 가면 됩니까’ 물으면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

고 하신다. 하지만 가다 보면 그 ‘조금’이 조금이 아니라 ‘한참’이고 그 ‘쭉’이 쭉이 아니라 ‘이리저리’다. 시골 노인들의 길 안내는 황당해서 그만 웃음을 자아내곤 한다. 하지만 그때 깨닫는 것이 있다. 시골 어르신들은 ‘공간’ 속에 살고 있고, 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분들은 ‘공간’ 속에서 길 안내를 했고, 나는 ‘시간’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려 들었다는 점이다. 시골 노인들에게 땅과 공기와 나무 등 모든 공간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교감하지만, 나는 ‘스피드’라는 개념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간성을 잊고 있었다. 실제로 공간 속에서 자연과 삶을 건강하게 일치시켰던 우리 선조들의 ‘공간주의 미학’은 옛 마을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선 동네 입구에는 장승과 솟대가 나그네를 맞이한다. 거기를 조금 지나면 일종의 참여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서낭당 돌탑이 나온다. 그 뒤를 다리와 시냇물 그리고 가로수가 이어지고, 타작마당과 정자나무가 나오면 거기가 바로 마을의 광장이다. 살림집들은 그 뒤로 펼쳐지고, 아담한 동산들이 병풍처럼 감싸 안는다. 보라. 우리의 삶은 원래 이렇게 공간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체험하는 삶이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단 하나의 선만 가지고 사는 오늘의 문명은 ‘속도주의’에 빠져 스스로 생각의 폭을 제한하고 공간과 자연을 토해낼 뿐 도무지 꺼안지를 못한다. 아예 공간을 잊고 산다.

하지만 시간도 공간이다.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물처럼 얽힌 ‘관계의 공간’이다. 같은 시기에 뉴욕에 살았던 두 사람의 후손을 조사한 어떤 연구결과를 보았다. 맥스 주크스(Max Jukes)와 조너선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라는 사람과 그 후손들을 비교 연구한 것이다. 맥스는 신앙인이 아니었고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거부했으며 감옥을 들락거리고 살았다. 이후 200년 그들의 후손 1,026명을 조사해보니 그중 300명은 평균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으며, 680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이 가족은 나라의 세금만 축내었지 사회에 베푼 것은 단 한 푼도 없었다. 하지만 조너선 에드워즈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후손 929명을 조사해보니 목사가 430명, 대학교수가 86명, 대학총장이 13명, 국회의원이 7명, 그리고 미국 부통령 1명이 나왔다. 이 가족이 남긴 책은 모두 75권이고 모두 뛰어난 작품들이었다. 이 통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 개인은 결코 어느 한 시점에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 개인은 그가 사는 시대의 가정과 사회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공간’에 그물처럼 얽혀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성과 공간성을 깨닫는 자만이,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이 내 후손들과 그들이 살아갈 사회 및 지구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찰하는 자만이 비로소 ‘책임 있는 자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윤리적인 자아는 그렇게 탄생한다.

아메리카의 원주민인 한 시애틀 추장의 말이 지금처럼 중요할 때가 없다. 1854년에 땅을 팔라는 미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두아미쉬-수쿠아미쉬 족의 시애틀 추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사겠다는 당신의 제안을 심사숙고할 것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속 안내,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신성한 것들이다. 만물

은 서로 맺어져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게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렇다. 땅의 거룩함, 만물의 신성함 - 이것을 잃어버린 ‘문명’이 약탈하고 학살한다.

이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다. 한 세기도 훨씬 이전에 오늘 우리의 이른바 ‘문명의 세계’에 대해 깊고도 진한 울림을 준다. 사실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오늘처럼 인간과 자연의 연계성을 망각하고 사람의 생각과 에너지를 온통 소득과 소비와 경쟁에 쏟아 붓도록 강요하는 문화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시대의 예외성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너무나 당연시되는 생각과 문화를 초월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스스로 오만해진 오늘 우리의 문명은, 또한 그 속에 오래 살아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망각한 우리는 스스로 비춰볼 거울이 없는 것이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평생을 청빈하게 살면서 순수한 시를 읊었던 천상병 시인은 <귀천(歸天)>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평생을 자유인으로 살았던 시인에게 인생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과 같은 것이었다.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뛰노는, 멋진 소풍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고 싶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다. 그의 시는 결코 도피적이지 않다. 피안적이지 않다. 그는 결코 저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귀천>이라는 시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봄나들이 소풍과도 같이 짧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깊이, 그리고 아름답게 긍정하고 있다. 우리는 천상병 시인의 시를 생태적 관점에서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은 ‘지구라는 초록별에 보내진 순례’와 같다. 이 광활한 우주, 곧 ‘하나님의 집’(oikos) 안에서 우리는 아주 작고 푸른 지구별로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서 “땅을 경작하고 지키며”(창세기 2:15), 서로 돌보고 아끼며 살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사회복음’(Social Gospel)로 유명한 미국의 발터 라우셴부쉬(Walter Rauschenbusch)의 기도문이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우주라는 놀라운 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광대함과 풍요로움, 그 안에 넘치는 생명의 풍성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 일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창조의 아침의 장엄함을 보게 하소서. 기쁨 가득한 사랑의 노래를 듣게 하시고, 봄날이 숨쉬는 향기를 맡게 하소서. 이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근심에 빠지거나 정욕으로 눈이 멀어, 길가의 가시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오르는데도 무심히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라우셴부쉬는 길가의 가시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오른다고 노래한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

광이 이 우주 밖에서 따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 안에 깃들어 환히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영성의 소유자다. 사도 바울도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로마서 1:20)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고린도전서 15:28)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심”(골로새서 3:11)을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성례전적 감수성’이다.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가 말하는 ‘문명’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자연)를 거룩하고 신비롭게 볼 줄 아는 깊고 푸른 눈이다. 영적인 눈이다.

성례전(聖禮典, sacrament) 혹은 성사(聖事)이란 말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기독교의 예식’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는 물질이, 자연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전달해준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성찬용 빵과 포도주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만물이 거룩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만이, 시온만이,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우주만물이, 천하가(누가복음 2:1),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신다. 이스라엘 후기에 발달한 ‘쉐키나’(schekina) 전통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인격적 형태로 창조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집에 사는 모든 것에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고 계신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다. 오늘의 이 문명이 이러한 영적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인간과 지구 사이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어울림’을 다시 상상할 수 있다.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해 열려있을 때, 즉 모든 것을 ‘나’로 만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생명이 된다. 상대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그것을 향해 달린 ‘남’이 되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된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사이에 본래부터 존재해온 ‘근원적인 유대관계’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공간’ 안에서 모든 것에 열린 ‘나’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피조물의 하나인 인간 사이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일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경축해야 한다.

창조세계의 보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정교회(Orthodox Church)의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는 이렇게 말한다. 그의 별명은 ‘녹색 총대주교’(Green Patriarch)이다. “‘신성한’(sacred) 가르침에 관심을 두는 종교 단체의 수장이 ‘세속적’(secular)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얼핏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하느님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시선이나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생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태도의 위기입니다. 우리

는 지구를 창조주 하느님의 선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무신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유지하고,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의무입니다.” 태도가 본질이라 했다. 우리는 이 문명의 태도에 대해 물어야 한다. 생명과 자연(창조세계)에 대한 자세를 물어야 한다. 태도나 자세는 형식이나 겉모양이 아니다. 그것이 본질이다. 본질이 바뀌어야 문명이 바뀐다.

이현주 님의 기도 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를 읽어본다. “너는 흙이니 흙을 살아라 / 죽어서 흙 될 일 생각 말고 /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 온갖 썩는 것 더러운 것 / 말없이 품 열고 받아들여 / 오래 견디는 참 사랑 / 모든 것 삭이는 세월에 묻었다가 / 온갖 좋은 것 살아 있는 것 / 여린 싹으로 토해내어 / 마침내 열매 맺히도록 / 다시 말없이 버터주는 흙으로 / 흙으로 살아라 너는 흙이니 / 오오, 거룩한 흙으로 살아라.”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라고 한다. ‘슬기로운 흙’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전혀 슬기롭지 못한 것 같다. 시인은 우리 인간이 ‘슬기로운 흙’이 아니라 ‘거룩한 흙’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죽어서 흙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흙으로 살라고 말한다. 사람이라는 뜻의 영어 “human”(휴먼)은 라틴어 “humus”(후무스) 즉 ‘흙’에서 나왔다. 여기서 “humble”(험블), 즉 ‘겸손한’이라는 말도 나왔다. ‘인간’과 ‘겸손’이 한 뿌리다. 이 겸손을 잃어버린 인간이 지금 문제다. ‘거룩한 흙’은 ‘겸손한 흙’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겸손한 존재가 거룩한 흙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종(種)의 차원에서 통시적으로 고찰한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그의 책 『사피엔스』에서 “사피엔스는 이제 스스로 신이 되려 한다”라고 말했다. 실로 오늘날 호모 사피엔스는 과학을 통해 자연선택을 지적설계로 대체하고 유기체가 아닌 생명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앞으로 인간 사회와 경제뿐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도 유전공학, 나노기술, 뇌 기계 인터페이스에 의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심지어 죽음조차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저자는 예상했다. 오늘날 호모 사피엔스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더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과학이 죽음에도 모종의 기술적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 한 구석에서 자기 앞가림에만 신경을 쓰는 별 중요치 않은 동물이었다. 이후 몇 만 년에 걸쳐 이 종은 지구 전체의 주인이자 생태계 파괴자가 되었다. 오늘날 이들은 신이 되려는 참이다. 영원한 젊음을 얻고 창조와 파괴라는 신의 권능을 가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가 신봉하던 이 시대의 환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결국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어느 시대나 신봉하는 환상이나 검증되지 않는 믿음이 있다. 우리 세대의 환상은 시장(市場)이 인류를 구원하는 전능자라는 믿음이다. 시장을 구세주처럼 예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이다.

신자유주의란 케인스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반발로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소생시키고 부흥시키려는, 1970년대 이후의 현대 경제사상 운동을 말한다. 그것의 핵심이론은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됐을 때 시장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이런 이론적 주장을 넘어서 시장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시장에 대한 '종교적 신앙'을 의미한다는 데 있다.

자유주의라는 교리는 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하이에크(Hayek)의 사회철학에 기초해 있다. 그는 단순한 이론 경제학자가 아니었다. 사상의 힘을 통해 세상의 변혁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열정적 선동가였다. 그는 평생을 '자유주의 유토피아' 건설에 바쳤는데, 그가 말한 자유주의적 이상사회는 '사회정의'와 '이웃사랑' 윤리가 노골적으로 거부된 사회였다. 그는 개인의 '자유'(liberty)와 사회적 '정의'(justice)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성서가 말하는 '이웃사랑'의 윤리도 부족사회의 낡은 윤리를 현대사회에 강요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가르쳤다.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극단적인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연대의 부정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가 고통스럽게 경험해 온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삶, 그리고 공공성의 붕괴는 이런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의 발원지라 해도 좋은 영국이 유럽 주요국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그것을 증거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식 복지가 신자유주의에 제압당한 후, 영국의 의사들은 의료용 마스크와 장갑은 물론 가운데서 돌려 입으라는 지침을 받았다. 13%에 이른 영국의 코로나 치명률은 영국 공공의료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는 미국은 더욱 참담했다. 뉴욕은 사람들의 '떼죽음'으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자는 10대의 한국인이었는데, 그는 보험이 없어 치료를 거부당해 사망했다. 미국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가 없다. 저소득층과 65세 고령자가 아니면 국민은 '민간' 보험을 들어야 한다. 보험에 들 여유가 없으면 병에 걸리지 않길 바라며 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에선 정말로 '아프면 파산한다.' 현재 미국 인구의 약 8%가 아무 의료보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여기에 불법체류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직으로 직장보험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까지 합치면 현재 미국에선 약 5,000만 명이 보험 없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집단이 죽음의 위협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복지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신자유주의의 도그마에 따라 건강도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로 만든 앵글로색슨 나라들의 비참한 결과다.

하이에크는 시장이 '자생적 질서'이며 그렇게 스스로 이루어가는 사회적 진화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에게 시장은 마치 물과 바람과 같은 존재여서 인간이 통제할 수도, 통제하

려 해도 안 되는 어떤 신비한 존재였다. 하지만 칼 폴라니가 그의 역작 <위대한 변혁>에서 강조했다시피, 이른바 자유시장은 강력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로 만들어졌으며, 그것은 역사의 종착역이 아니라 한순간의 과정에 불과하다.

신학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는 ‘하늘의 가능성’을 닫아버린 ‘자폐적 세속주의’이다. 하이에크는 “한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노력은 반드시 주어진 가치의 틀 안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매우 보수적인 원칙을 내세웠다. 그 결과 그의 자유시장 유토피아 안에는 현재 주어진 인간의 질서와 문명이 반드시 절대적이고 또 운명적일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 없다. 초월의 지평, ‘하늘의 가능성’이 없다. 오직 스스로 성취해 나가는 시장의 무한한 진화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차단한 신자유주의 유토피아 사상은 자기 안에 갇힌 세속주의라 해도 좋을 것이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신자유주의가, 시장에 대한 지고지순한 종교적 믿음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명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초미세 바이러스에 의해 무너졌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다윗 왕의 반지 안의 글귀를 기억하며 속히 과거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꿈꾼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은 어디에도 없다. 평화롭게 박쥐가 잠자고 있는 숲속의 동굴 앞까지 불도저로 길을 놓은 과거 우리의 일상은 결코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다. 곧 쓰레기가 될 물건을 무한히 생산하고,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부추기며,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킨 과거 우리의 일상은 지금의 재앙의 원천이다.

정신사적으로도 신자유주의는 시장 만능사회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없다’(TINA - 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일종의 지적 패배주의였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수천 개의 다른 세상이 열려있다.’(TATA - There Are Thousands of Alternatives)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욱 분명한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힘이다.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예수께서는 이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마가 1:15),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했다.(누가 17:21) 그 ‘하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 코로나 이후의 사회와 순환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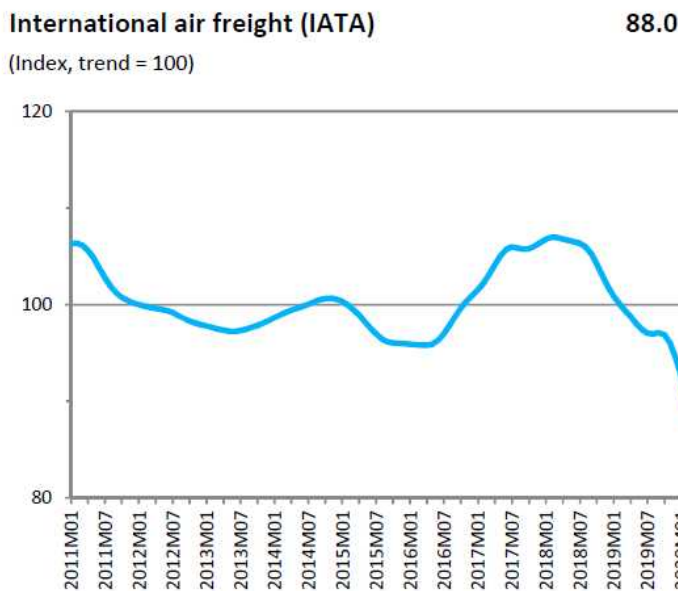
이승무/순환경제연구소 소장

요약: 코로나 발생 이후 통관 검역의 문제로 세계 무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서유럽에서 140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국제무역의 확장 추세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주춤하게 되었다. 이런 사태는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자연이 인간사회에 가할 수 있는 충격의 수단은 인간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인간사회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코로나도 그중 하나일 뿐이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 해도 다른 전염병의 지속적인 창궐에 의해 국제적 거리두기가 일상사가 된다면, 국제 분업 체계로 이어져 온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불가피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 지역, 구체적으로는 유역(流域)을 단위로 한 물질순환 체계가 국제무역체계와는 정반대 방향의 대안이다. 140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의 역사적 과정을 복기해 보면서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고 해도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종착점을 생태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이론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 1. 코로나 발생 이후의 국제 물류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은 1월-2월로 볼 수 있다. 중국을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 입국을 통제하고, 통관 시 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여객 및 화물의 운송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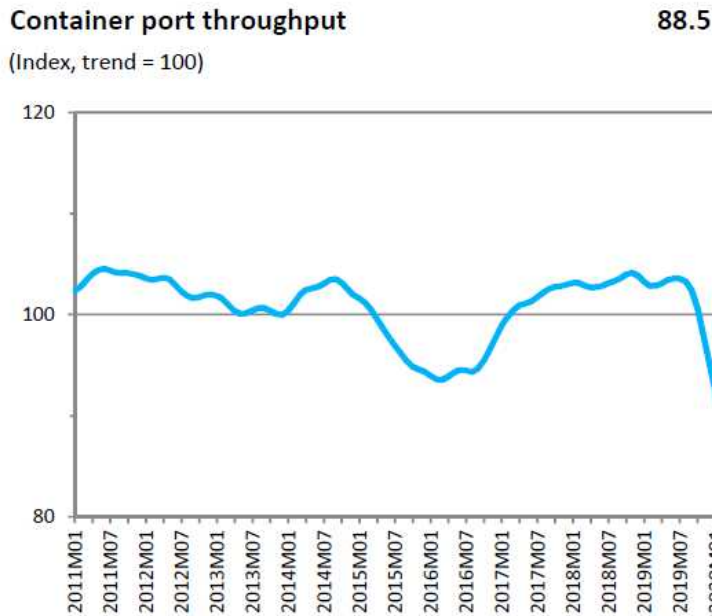
다음 표는 항공 운송량의 최근 추세를 보여준다.



Source: IATA.

[그림 2] 항공 운송량의 최근 추세

항공운송만이 아니라 해상운송을 포함한 모든 물품의 국제이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다음 표는 컨테이너의 항구 통관량을 보여준다.



Source: ISL.

[그림 3] 컨테이너 항구통관의 최근 추세

전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무역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다음 표는 금년 4월의 통계다.

구분	'19년	'19.4	5	6	7	8	9	10	11	12	'20.1	2	3	4
석유제품	△120	△1.6	△10.4	△25.8	△9.6	△16.0	△16.9	△26.5	△12.2	△5.3	△6.3	△8.1	△19.8	△56.2
철강제품	△82	△8.2	△7.0	△9.4	△19.5	△17.2	△7.4	△10.0	△9.6	3.7	△13.8	△4.2	△3.1	△21.7
가전제품	199	24.5	24.0	49.7	36.4	24.1	15.7	11.6	4.3	0.2	△27.0	△18.1	△10.4	△51.0
유선통신기기	△152	△12.1	△10.0	△24.7	△3.2	△20.6	1.2	△2.9	△25.6	△18.4	△9.7	△4.3	△13.0	△13.8
무선통신기기	21.6	46.4	△1.6	7.6	17.6	51.0	81.3	35.2	△4.6	7.5	△13.6	6.9	15.1	△28.2
반도체	△25.4	△12.7	△29.2	△24.8	△27.6	△30.7	△31.7	△32.1	△30.9	△17.9	△3.8	8.7	△3.0	△14.9
액정디바이스	△55.8	△51.8	△54.0	△55.2	△56.5	△61.9	△64.4	△64.5	△52.2	△53.4	△45.3	△38.2	△20.9	△36.9
승용차	5.8	6.0	13.0	9.7	22.4	5.6	4.9	△2.0	0.3	1.9	△22.1	△15.4	7.2	△35.6
자동차부품	△26	△0.2	△8.3	△13.6	0.4	△5.2	1.5	△6.9	△9.4	3.8	△15.1	10.4	0.9	△49.5
선박	△56	56.8	46.1	48.6	△8.7	185.0	29.6	22.7	△62.9	△59.7	61.1	4.1	△32.3	△62.3

[표 1]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전년 동월대비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품목에 따라서는 50% 이상씩 1년 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다. 수입을 보더라도 감소 추세는 분명하다.

구분	'19	'19.4	5	6	7	8	9	10	11	12	'20.1	2	3	4
소비재	3.6	11.3	5.5	△6.7	9.7	5.5	12.4	△3.2	△5.3	10.0	△8.9	3.2	△3.8	△9.5
원자재	△9.0	2.2	△5.7	△13.7	△7.6	△8.3	△13.9	△19.9	△19.1	△5.0	△3.5	△4.8	△3.0	△24.5
자본재	△5.6	0.6	0.6	△8.1	△0.2	△2.2	△0.05	△11.6	△5.9	0.9	△6.1	12.0	7.0	△5.9

[표 2] 범주별 수입 증감률. 전년 동월대비

이러한 추세는 얼마나 오래 갈지 예측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그동안 확장되어 온 방향의 중추에 해당하는 국제 분업 시스템을 코로나가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분업 시스템, 그리고 국제무역에 의존한 자본주의 경제가 코로나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에 못지않게 명백한 사실은 자본주의의 작동방식과 물질흐름 방식이 그동안 계속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해 왔고 그 파괴의 결과는 경제활동의 기초를 꾸준히 침식해 왔다는 것이다. 삼림파괴와 기후변화는 그 단적인 국면이다. 전염병의 일종인 코로나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일으켰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자연스럽게 생성된 코로나는 국제무역에 의존하여 진화해 온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 2. 국제 무역의 역사적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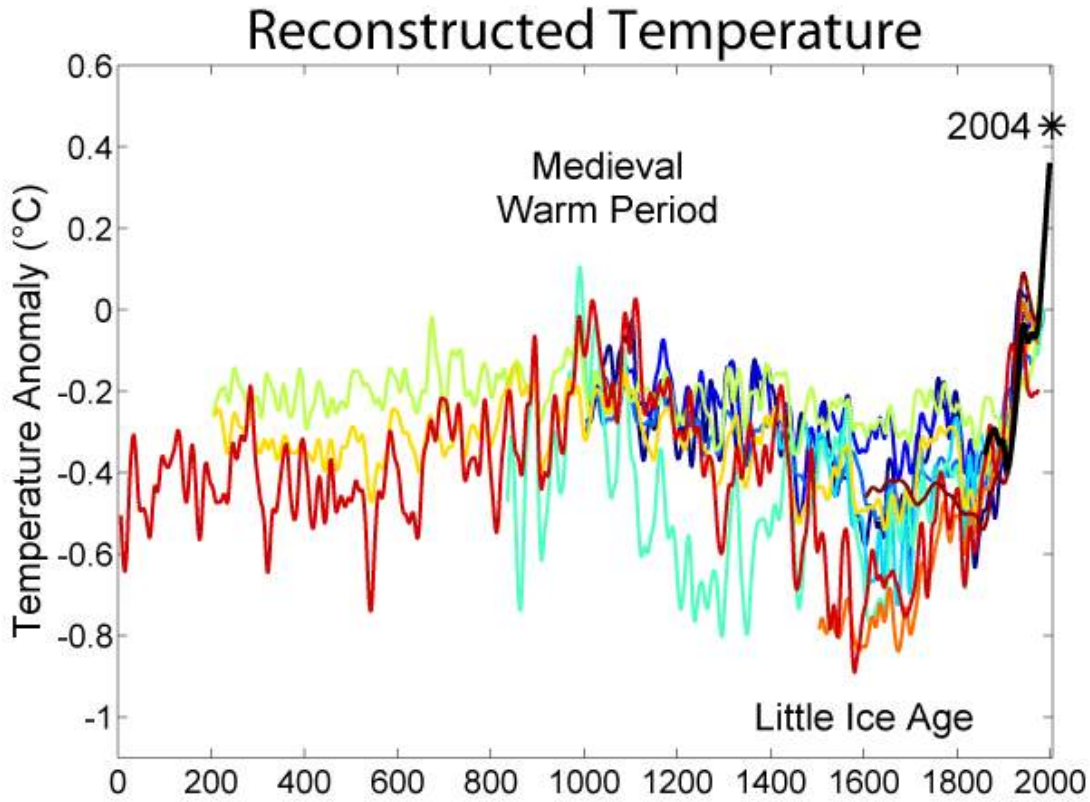
자본주의 경제가 발생한 곳은 서유럽이다. 그중에서도 영국이 고전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생기기 전에는 농촌 마을들은 경작지와 주택은 가구별로 소유자가 있었고, 삼림, 초지, 하천 등은 공유였다. 서유럽만이 아니라 구대륙의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유럽 대륙에서 모직업이 발달하면서 영국이 질 좋은 양모의 공급지가 되고, 이에 따라 귀족들은 양모를 생산하여 돈을 벌기 위해 전통적인 농촌 마을에서 농민들을 내쫓고 모든 공유지를 사유화하여 울타리를 치고 양을 길렀다.

농민들은 땅을 잃고 도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삼림이 파괴되고 농촌의 구조가 바뀌고 물질흐름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영국인들이 진출한 아일랜드, 인도에서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었다. 인클로저 운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양모무역 때문이라는 이야기와 이미 토양이 황폐화되어 농업생산성이 지극히 낮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대립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와 공유지 체계의 붕괴로 농민들이 프롤레타리아화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국제 무역에 의해 세계 전체가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변해 갔는지는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를 다룬 월러스타인의 Modern World System I~IV에 잘 묘사되어 있다. 국제무역에 의해 대도시들이 생겨났다.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국제무역을 기반으로 존재한다. 서울, 부산, 상해, 도쿄, 뉴욕, 런던 같은 대도시들이 현재의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다.

국제무역이 없다면, 이런 대도시들은 없어지고, 현재의 문명도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제무역과 대도시 중심 문명의 성장은 1300년대부터의 소비하기로 인한 유라시아 대륙의 몽골의 침략과 같은 민족이동과 문명적 지각변동의 결과로 촉발된 자본주의 문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과거의 기온변동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림 4] 지구 기온 변동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국제무역은 1876년의 강화도조약 이후 시작되었고, 특히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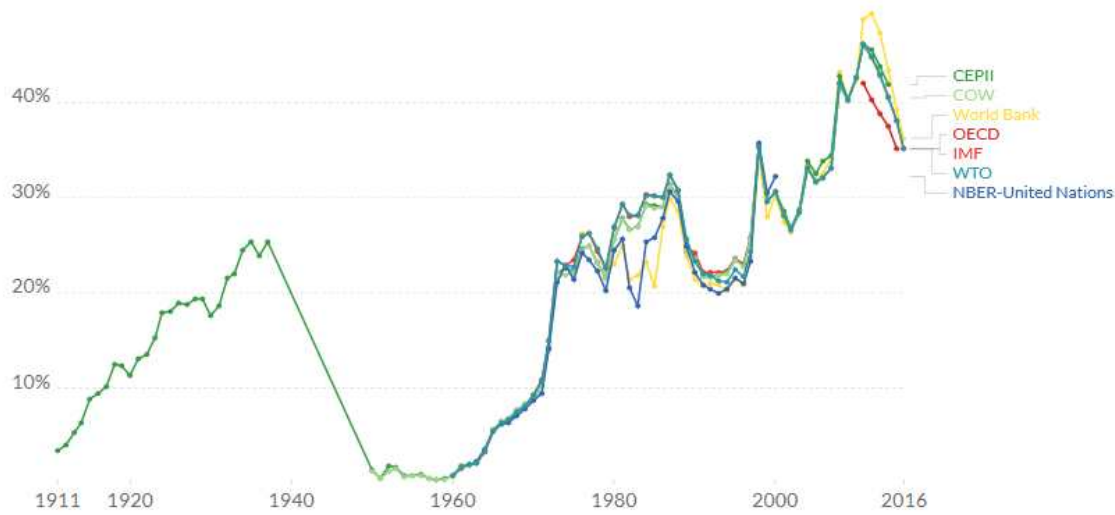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무역이 전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세계 평균보다 높다. 일제 강점기에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가 해방 후에는 아주 미미했고 1960년경부터 점차 비중이 상승하면서 1970년 경에는 전세계평균과 비슷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전세계 평균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40% 수준이고 전세계 평균은 25% 수준이다.

20세기이후 지금까지 운송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비용이 급격히 저하되어 오면서 글로벌 경제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무역 시스템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제무역 시스템의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 국제무역 시스템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물질적 혜택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노동자들, 농민들, 파괴된 자연환경에 대해 보상을 해 주고도 남는

### Various sources of merchandise trade as a share of GDP, South Korea, 1911 to 2016

Our World in Data

Figure corresponds to various data sources detailing the total value of exports as a share of the country's GDP. See the Source tab for further details on each data series.



Source: Fouquin and Hugot (CEPII 2016) CEPII Two Centuries of Bilateral Trade and Gravity Data

CC BY

[그림 5]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1911-2016)

### Value of exported goods as share of GDP, 1827 to 2014

Our World in Data

Estimates correspond to merchandise export-to-GDP rat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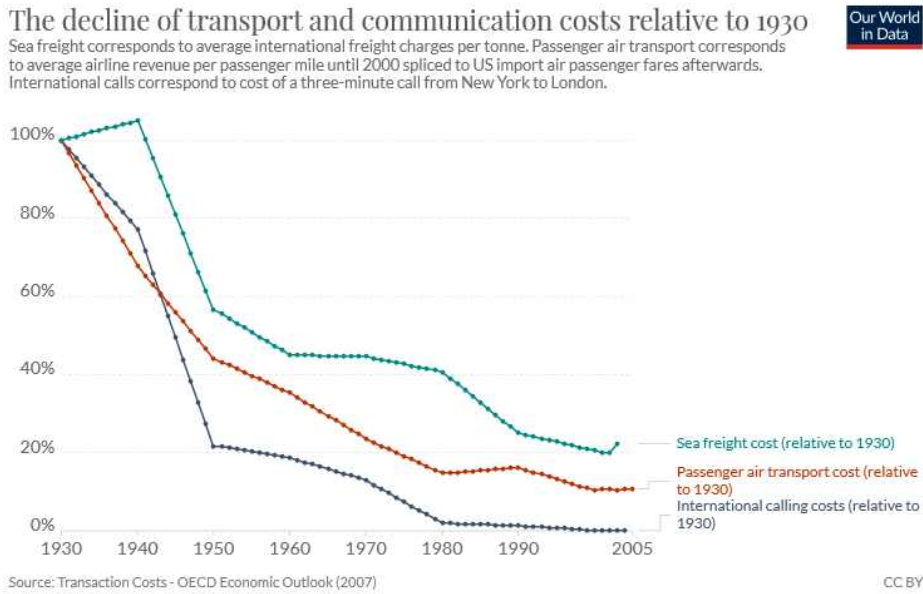
Source: Fouquin and Hugot (CEPII 2016)

CC BY

[그림 6] 전세계의 GDP에서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1827-2014)

가치를 지니는가? 아니면 표면적인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자연의 희생을 기초로 건설된 지속가능하지 못한 체제인가? 2) 설혹 국제무역의 공이 과보다 크다고 평가가 되더라도 과연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제 무역에 의존한 세계경제는 충분히 인간사회의 생계와 발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중요하다.

코로나 또는 그밖의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검역체계와 대응체계를 만들어서 전과 같은 글로벌 경제가 계속 성장하여 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아니면 국제무역의 축소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전통적인 순환경제에서 길을 찾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림 7] 운송, 통신비용의 저하 (1930년 대비)

### 3. 국제무역체제=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무역체제는 무역이 사회와 경제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볼 때는 1960년대 이후 그것은 농촌과 농업의 위축, 수출산업 중심의 공업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나타났다.

마르크스는 이미 1850년대부터 자본주의 체제의 물질순환 구조를 깊이 있게 연구했다. 마르크스의 경제학 체계는 물질세계의 기초를 강조하는 역사관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의 물질흐름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순환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노동과정과 땅의 생산적 기능을 관찰했다. 전세계의 시장에 대한 공급을 위한 산업 운용으로 자본은 무한한 팽창을 추구해 가며, 이에 제약이 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땅과 자연의 고갈과 황폐화 가능성이었다. 노동자들과 자연에 대한 착취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자본주의의 확장에서 동시에 일어난 과정이었다. 마을 공동체의 물질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도시와 농촌의 경제가 분업화되면서 농촌의 땅이 황폐화되고 도시의 폐수, 폐기물, 위생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갔다. 당대의 농화학자인 리비히 등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대사 체계의 균열, 이로 인한 생태적인 파괴와 파국을 내다보았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저술한 1867년 이후에는 서거할 때까지 더 이상의 중요한 저술을 내놓지는 못했으나 생태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자연과학 서적들을 읽어나갔



으며, 그중에는 카를 니콜라우스 프라스(Karl Niklaus Fraas)라는 농업 물리학자의 이론도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땅의 지력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이론이라고 한다. 기후가 땅의 생산력에 토양성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며, 숲의 파괴는 강우량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땅을 사막화시켜서 식량생산의 기반을 붕괴시키게 된다는 이론인데, 자본주의 경제의 붕괴 가능성 중의 하나로서 이에 주목했다.

19세기 당시에 삼림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깊은 관심을 가졌고, 삼림의 보존을 위해서는 사유재산 제도에 맡겨둘 수가 없고 국유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자본이 삼림을 장악하는 경우에는 삼림이 파멸한다. 왜냐하면 좋은 삼림관리는 자본주의의 현금화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 -> 숲의 파괴 -> 기후변화 -> 토지의 황폐화라는 생태문제에 마르크스가 이미 주목했던 것이다.

국제적인 분업과 무역 시스템이 남미와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오늘날에는 상식이 되어 있다. 남미의 열대우림을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단체들이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한 플랜테이션 산업 및 무역, GMO 등에 의해 야기되는 공동체 파괴, 기후변화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국제무역과 인적 교류, 여행은 일정 수준에서는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국제무역의 성장과 전세계의 단일시장화에 의존한 세계경제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이에 의존한 제국 문화 자체가 깊이 병이 든 문화로서 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생태 문제를 깊이 연구하는 이들의 견해다.

#### 4. 대안: 순환경제?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고 숨 쉴 공기를 공급해 주는 자연이 위기에 처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원인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 우리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인간이 이룬 문명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문명을 이루는 기둥 중에 종교가 있고, 도시와 농촌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있고, 결혼과 가족과 남녀차별의 질서가 있다. 이 문명은 수십만 년에 달하는 인간 공동체의 역사에서 제국 문화의 시대를 가리킨다. 제국 문화의 특징은 군사주의와 가부장제와 성장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 문화에서 사람들은 땅의 생명과 분리되고 위계질서를 이룬 사회 안에서 내면적으로 병들어 있다. 그 결과는 땅이 헐벗게 되고 토양침식이 일어나고 푸르던 대륙이 황량한 사막으로 점점 변화해 간 것이다. 그 증거가 구대륙 곳곳에 널려 있다. 대표적으로 중동 지방이 그렇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그렇고, 중국 서부 지역도 그렇다. 인류의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농업과 목축업이 푸른 숲을 망치게 된 것인데, 이러한 토양의 양분 강탈과 토양 침식이 일어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분리, 도시에 의한 농촌 수탈, 군대의 유지와 침략전쟁 같은 제국 질서의 유지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제국문화는 근대 이전에는 구대륙의 동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등 몇몇 곳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서 지구 구석구석에 침투하여 자연과 공생하는 토착민 사회들을 폭력적으로 뒤집고 파괴한 것 때문에 우리는 서유럽의 근대 산업문명과 제국주의가 환경파괴와 자연 황폐화, 자원고갈의 주범인 것처럼 쉽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동아시아 문명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다. 벼농사를 신석기 시대부터 수천 년간 지어왔지만 동아시아의 토양은 고갈되지 않고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해 왔다. 사람과 가축과 식물이 공생하는 농촌 마을을 유지해 온 것이다. 화석연료와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70년대 녹색혁명 이후로 토양은 산성화되고 양분이 고갈되어 갔다. 그에 뒤이어 도로 확충과 난개발로 토양이 침식되고 농촌 환경은 점차 황폐화되어 갔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농촌의 유기물질 균형이 대도시 건설 이후 파괴되어 양분이 일방적으로 도시로 빠져나갔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제국 문화는 대체로 유교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가부장제이고 철저한 남존여비와 반상차별의 신분사회였고, 국가에 의한 농촌수탈이 있었지만 어쨌든 석유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외 침략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제국 문화의 폐해는 동아시아에서는 아편전쟁을 통한 유럽의 침략,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단작농업체제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된 것이다.

현 시대에 우리는 향항(香港: 일명 홍콩) 사태,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 남한에 대한 일본의 경제제재 등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는 단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과 충돌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해양무역과 해양군사패권을 축으로 확장되어 온 문명이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다는 데 대한 위기감, 불안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에 반해서 대륙의 문명은 시장과 무역보다는 농업과 순환과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현대 세계에 적응하여 힘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현 시대의 순환경제는 이러한 문명사적인 조건에서 구상되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물질의 순환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가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영위되었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는 농촌 지역 중심부에 농업을 지원하는 도시를 포함하여 큰 권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순환경제 권역은 지형과 수계(水系)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우리나라에는 수계를 중심으로 대권역 21개, 중권역 117개, 표준권역 840개로 수자원지도가 그려져 있으며, 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순환경제의 권역이라고 볼 수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 임진강 유역(임진강은 총 연장 254.6km이고, 유역면적은 8,117.5km<sup>2</sup>이며 그 중 북한지역이 전체의 62.9%를 차지하고 있다. 임진강 유역은 주변 지역의 고도가 낮아 홍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을 안고 있다.)은 국경선만 아니라면 중국,

수계	면적(km <sup>2</sup> )	인구
한강수계	26,018	20,871,355
낙동강 수계	23,717	6,695,041



금강수계	9,916	3,473,407
영산강수계	3,371	1,861,080
대동강수계	20,247	
압록강수계	61,500	
청천강수계	9,553	
두만강수계	41,200	
제주도	1,847	657,083
섬진강수계	4,897	281,207
섬진강 남해		890,359
임진강	8,817	

[표 3] 한반도의 주요 수계(水系) 현황

북조선, 중국, 러시아, 한국의 자연적인 공동 경제권역이 되어야 마땅한 지역이다.

현재 남한에는 하천 수계를 중심으로 22개의 대권역이 구분되어 있다. 이는 문화와 경제의 지형에 따른 자연적 단위들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지형도를 보면 사람들의 생활문화권을 알 수 있다. 산맥들이 생활문화권의 경계선이 된다.

수계를 중심으로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하고 생활습성도 비슷하다. 이런 지역들이 자생적인 순환경제를 이룬다고 본다. 한반도 허리에 해당하는 네 개의 생활문화권이 인위적으로 분단이 되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구의 땅에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받으며 살고 있다.

임진북 예상남 정맥과 한북정맥으로 둘러싸인 생활권 그리고 한남정맥과 한북정맥,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인 생활권,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으로 둘러싸인 생활권의 세 지역이 한반도의 중부지방이 된다. 이 중에서 임진북예성남 정맥과 한북정맥으로 둘러싸인 생활권은 개성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중심 지역이었다. 이 지역이 사실상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다. 물론 조선시대의 중심지역인 한강 생활권에 해당하는 한북정책, 한남정책,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인 지역도 정치적으로 분단이 되었다.

해서정맥과 임진북예성남 정맥으로 둘러싸인 황해도 남부의 생활권도 연평도, 백령도를 남쪽에서 정복하여 분단이 된 것이다. 그 지역들의 생명 공동체가 불구가 된 것이다. 동해안 지방은 남북으로 길게 하나의 문화생활권을 이룬다. 이 지방 역시 인위적으로 단절을 겪었다.

이것은 제국주의 문명이 인민과 자연생태계에 가한 폭력이라고 규정할 것이다. 통일은 불



[그림 8] 한반도의 분수계 지도

구가 된 생활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남부지방의 생활문화권도 생각보다 복잡하다. 사실상 남부지방은 분단으로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다. 이들의 문화는 비교적 온전히 보전되어 온다.

북한지방의 핵심은 청남정맥과 해서정맥 그리고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인 평양 중심의 생활권이다. 그리고 청천강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 그 위에 위치한다. 한반도의 가장 북쪽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 유역으로 나뉜다. 이 지역 역시 조선과 중국이라는 인위적인 국경선으로 갈라져 있다. 그러나 압록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남과 북도 같은 문화권이다.

한반도는 13개의 생활문화권으로 파악될 수 있다. 각 생활문화권은 문화적인 동질성이 강한 지역들이다. 의식주의 형태에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기본 인식을 가지고서 국제 분업 체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자연 순환적인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한 순환적인 문화와 경제 활동을 열어갈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순환경제적인 물질순환 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양성 그리고 이에 걸 맞는 문화 활동이 크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건강한 후세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별 친환경 먹거리 공급, 돌봄, 여가 활동, 생태적 주거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에서 담당하는 이러한 진출영역은 산업적으로 조달하기가 어려운 영역이고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영역들이다.

이러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국가는 각 문화권의 국립대학의 공학계열은 제1공학부와 제2공학부로 구분하고, 제1공학부는 해당 문화권의 전통과 풍토를 살린 의식주 및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술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공학부는 기존의 산업활동에 관련된 공학교육을 담당한다.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에는 전통적인 의식주 및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술과 실업교육을 담당하는 고등학교를 세운다. 이처럼 기존 산업 패러다임과 순환경제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협력하며 동시에 경쟁할 수 있다. 물론 산업 영역에서는 더 강력한 환경과 자원절약에 대한 규제와 자발적 노력이 요구된다. 순환경제 영역에서는 자치공동체 차원에서 철저한 교육지원, 작업공간 확보 등 여러 보호 육성 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5. 일과 사람에 관한 대책

### (1) 노동과 인구, 사회적 경제

지금의 한국 경제는 군사독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에 의해 기틀이 마련되었다. 1960년대에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다가 정부가 금융의 배분 권한을 가지고 대기업을 키워서 중화

학 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전략을 썼다. 군사독재 정권이 강권적 수단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토지재산이 사유 재산권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치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었다.

정부가 재벌기업들을 총지휘하는 본부가 되는 형태로 경제적으로 온 나라가 하나의 조직 체계에 따라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여 왔으며,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 종속된 신분을 지닌 대부분의 유권자에게 민주공화국 시민이란 허울뿐이었다.

기업에 의한 환경파괴, 열악한 작업환경, 부정부패가 눈감아졌다. 관료들이 이를 총 지휘하고 직장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발언할 자유가 없었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는 경직된 기업문화와 위계질서 때문에 더 이상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정체되었다. 교육받은 인재에 대한 수요도 없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조달도 문제시된다.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노동을 통해 고용주는 노동비용을 크게 절약하지만 사실은 질 높은 노동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사무자동화, 공장 자동화나 로봇의 활용에 의해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설비를 들여오려면 큰 자본이 들어간다지만 결국에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기계장치가 대신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일자리는 특수한 인적 용역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직무에서 인간노동을 기계가 완전히 대체하기까지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근로형태라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노동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직무 수행을 더 매뉴얼화하고 기계화시키다보니 이것이 해당 직무를 기계장치로 대체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기계장치가 먼저 도입되면서 해당 분야의 인력을 대체할 기술적 조건이 주어지고, 그 일을 하던 인력들의 직무가 저평가되면서 그 일자리가 잠정적으로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기술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이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과 파트타임이 일정 비율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자리를 최소화하고 전문직 프리랜서나 노령층 파트타임 외에는 모두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의 인력은 낭비된다.

폭넓은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일자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는 사회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노동의 양에 비해 그런 노동력의 공급이 부족하고 저급한 노동력의 공급이 많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저급한 노동 시장에서는 임금이 더욱 하락하고, 고급 노동 시장에서는 임금이 필요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는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비정규직과 파트타임이 많은 노동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일까? 사실은 국제분업 체제 하에서 고급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적고 단순한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하는 요인들이 이런 체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 구조는 산업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교육 시스템은 노동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산업구조 자체는 생산의 양식으로  
서 이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 사회의 분단과 전쟁은 전근대적 농경 사회질서가 해체될 무렵 두 노선의 갈등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일방적 폭력적으로 자본주의적 국제분업 질서에의 편입 노  
선으로 정리되면서 짝이 났다.

해방 후 국제분업 체계하의 고도성장 노선을 따르는 세력과 자주적 민족경제 노선을 따  
르는 세력 간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 후에 한반도 남반부에서는 균  
형적인 경제발전 노선은 주변화되고 국제분업 구조 내에서 임가공 수출 공업화 노선이 자  
리 잡았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1997년말의 외환위기로 IMF 구조조정이 된 것  
이다. 이 발전노선에서 한국경제는 하급 기능직 노동력의 양산(量産)이 가장 중요한 요구였  
다. 고급 지식 노동에 의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국제분업 체제 속의 한국의 위치에서는 기대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식과 과학기술의 생산 기능은 제1세계에 맡겨진다.

한국의 임가공 기능 인력의 지위는 자원고갈과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양에 의존한 임가  
공 산업이 각종 규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에 따라 전망이 없어짐으로써 더 낮  
아지고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비정규직과 파트타임의 번창이다. 혁신  
을 위한 인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가 살 길은 물량 중심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국제 분업 시스템에서 탈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의 생명력은 계속 고갈된다. 특히 인적 자원이 바닥나게  
된다. 균형 노선, 자립 노선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의 기  
회를 상실한다. 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도  
저임금의 저급한 임가공에 의존하는 국제분업 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 침몰해 가는 배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살 수가 없다. 인력, 자원, 에너지의 원가 절감에 의존하는  
단순 제조업의 대량생산 시스템은 이제 전쟁에 의한 대량 파괴가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  
으면 성장의 동력이 없다.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을 하는 3차 산업과 제조업인 2차 산업, 그리고 농림수산업을 중  
심으로 한 1차 산업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한다. 각 부문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조정역  
할이 필요하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의 인구감소는 결코 문화와 복지 수준 향상에 따른 긍정적인  
사태전개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 노동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저임금과 대도시 인구집  
중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자본주의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양적 변동의 영향은 인구의 행복과 질적인 생산역량이라는 것과는 관련이  
된다. 사실상 맑스주의에서는 인구의 양적 변동과 질적 변동은 같은 방향이다. 인구법칙이  
자연의 생물학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맑스주의에서는 인구 감소의 요인  
자체가 인구의 행복의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고용의 안정성, 여가시간의 감

소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동태적 현상도 그렇게 보면 더 설명이 잘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인구의 감소는 노동자 인구가 피폐화된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어 인구의 재생산 능력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노동력이 재생산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해외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인구는 노령화되고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다. 비자본주의 세계에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선택의 자유 확대가 점차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본주의가 사회의 전체를 장악한 단계에서 인구 급감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해외로부터의 이주 노동력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특히 모든 분야가 상업화된 도시는 인구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사라지는 인구는 농촌이나 해외에서 들어와서 보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어촌은 이미 인구의 공급지가 되지 못한다. 전세계가 산업화되고 상업화되는 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전세계 인구도 줄어든 것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기를 꺼릴 뿐 아니라 먹을거리가 상업화된 시장에서 안전성과 영양의 균형이 보장되지 않아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기 어렵다. 상업화된 교육시설에서 유아기부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제대로 클 수가 없다. 아이들의 놀이와 오락도 대부분 상업화되어 자극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다양성을 잃고 오락매체 제작자의 의도대로 표준화된 인간상을 이루어 가는데, 이는 상품광고에 즉각 반응하는 인간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노동력의 양이 줄 뿐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할 창의적인 노동력의 질이 낮아져 간다. 요컨대 삶의 모든 부분의 상업화는 인간적 역량을 점점 더 희소성이 높은 가치물로 만들어간다. 이대로 상업화가 완전히 모든 영역을 장악하게 되면 장차 회사에서 젊은이를 채용하기가 어렵고, 채용을 하더라도 지니는 소비욕구에 비해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젊은이를 구하는 것이 몹시 어려워질 것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생협이나 공동육아, 대안학교 같은 분야에서 소비자인 조합원들이 직접 경영에 관여하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에게 먹일 것을 조달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노력이 없으면, 위와 같은 암울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공공부문 자체도 점차 민영화되어 가고, 공교육은 관료주의에 의해 공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시민을 배출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교육 시장만 번창하는데 이는 아이들을 고득점과 경쟁에 능한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제3섹터로서 사람을 키우고 돌보는 일을 맡아 사회와 경제 자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섹터가 되어 간다.

## (2) 순환경제학의 접근방식

순환경제학은 기존의 경제 구조에서 원재료의 채취,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의 흐름 중에 폐기와 재활용을 맡아서 관리하는 환경관리 과학기술의 경제학이 아니라 순환원리를 경제에 도입하여 오염물질의 발생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식의 경제 운영 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경제에서 물질 순환 구조는 대체로 일방향으로 되어 있다. 이 물질순환 구조를 순환형으로 바꾸고, 자연이 흡수하여 자연의 힘으로 자생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자연의 힘과 경제적 논리로 물질이 재생 이용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정책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고, 재생 이용을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는 경제가 되려면, 역시 그 밑바탕의 <사회적 경제>, 즉 소유권 제도와 조세 제도가 이를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한다. 조세제도가 환경세, 토지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되고, 토지소유권 제도가 자치 공동체의 공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난개발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핵 에너지에 의한 발전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서 시작된다. 핵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가능하게 해 주는 토지 수용 법령은 공동체의 파괴와 사유재산권 제도의 상황에서 쉽게 된 것이라면, 공유 재산과 지방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지방 경제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 조세 제도도 환경세 중심으로 개편되어 지방의 풍토에 맞는 토지이용의 경우에는 조세가 저렴하게 하고, 오염을 발생시키는 산업의 경우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삶이 가능하도록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원을 낭비하고 삶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에서 경제적이지 못하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그래서 시급하다.

한국에서 시급한 것은 재산권제도와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토지소유와 기업소유의 형태를 공동체 자치가 가능하도록 개혁하여 공유와 공동소유를 통해 기업의 자치적 운영, 마을 자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이를 해외 개발을 통해 재충전한다.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아무리 은폐된 형태에서일지라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되어 있다. 우리는 그 자체적인 사회 경제를 발판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이로부터 탈출하는 길은 원재료와 에너지를 훨씬 더 적게 요하는 순환경제, 그리고 노동력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는 일터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변혁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소유권 제도와 조세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마을과 일터에서의 갈등과 논쟁이 순환경제와 일터 민주주의에서 유발되며 이는 불쾌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해외의 정복전쟁을 불필요하게 하는 민주적 생활 방식이다. 사회적 자본이 사적 자본을 대체하는 식의 사회적 경제는 토지 재산에 대한 공적 개념과 이에 상응하는 조

세 제도에 의해 수립될 수 있다.

## 5. 결론

코로나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제분업과 국제무역의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코로나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체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과연 과학적이고 능률적이고 완벽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의 국제 분업 시스템을 지속해 갈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지금의 국제 분업 시스템은 지구환경과 인간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쪽으로 진행해 왔음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완벽한 방역시스템만으로는 미래 세대의 건강한 생존과 지속가능한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안 체계를 구상하여야 한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역사적 경험과 문화를 공유한 민족 공동체이면서 서방의 자유무역과 해양패권에 의존한 자유주의 체제에 저항해 오고 오랫동안 경제제재를 받아온 북한이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자급자족, 자립경제의 몸부림에는 현시대의 갈등과 고통을 넘어서 가려는 의지와 함께 미래의 씨앗을 품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순환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경제 체제다. 남측에서도 이를 냉소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지혜를 나누는 입장에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코로나 19 이후의 한국 사회와 교회’로서 기독교 종교인들이 마련한 포럼이다. 교회라는 제도보다는 종교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며,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도 사회구성원들의 안전, 건강과 번영을 위해서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세력구도에 의해 주어진 틀 안에서 한국의 정치경제의 지도세력과 행정기구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까지의 발전방향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경제적 자기 이익추구와 거리를 두고 대자연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 그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설이 말해주는 것처럼 아무리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정확한 사태파악이 가능하고 변화를 위해 작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작은 목소리와 움직임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경제력이라는 동력이 아니라 종교와 관련이 크다고 생각되는 관심과 의지와 감응(感應)의 힘에서 나오겠지만, 종교가 제도화되고 관료화되어 그 조직의 유지와 성장에 치중할 때는 그런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된다. 사회의 제도로서 정신적인 안정이나 전통적인 세계관, 가치관의 전수, 자선과 사회복지 등 종교기관의 기능들은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의 부작용을 완화해 줌으로써 사회가 서서히 망해가면서 사람들이 망해가는 것을

깨달아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여러 종교들이 과연 문명의 전환기에 인류와 한국사회에 새로운 길을 가리켜 준다고 하는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서 과학, 기술, 행정은 미지의 영역이 많은 한계점을 안고도 합리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사회구성원들을 이끌어 가고 있지만, 오히려 일부 종교 세력이 시민적 양식에 미치지 못하는 비과학적인 주장과 행동으로 말썽을 일으켰던 것을 본다면, 건전한 사회제도로서의 기능에조차 미달해 있는 종교집단들에 현재로서는 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도권 내의 과학과 사회과학, 행정이 보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는 전체로서의 생명과 생명 살림에 눈을 돌린 종교인들이 있고, 또 종교인들은 아니라고 해도 전 세계 곳곳에 지금의 인간문명의 위기에 대해 심각함을 느끼고 인간사회가 회복해야 할 새로운 생명문화에 대해 비슷한 견해들을 내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미래의 대안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 참고문헌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토 고헤이, 2020, 추선영 옮김, 마르크스의 생태사회주의.

카우츠키, 카를, 2015, 이승무 옮김, 농촌문제.

코키, 윌리엄, 2020, 이승무 옮김, 제국문화의 종말과 흑의 생태학.

Our World in Data, Trade and Globaliz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Statistics News.



# 보건의료 및 돌봄의 개편 방향

임종한 /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회의회 상임대표, 인하의대 교수

## 1.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

세계의 시대를 코로나 바이러스 19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19가 남긴 영향은 엄청나다. 5월 27일 자 기준으로 185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가 553만명이고 사망자가 벌써 3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중요 국가에서 산업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여러 형태로 제약되는 상황이다.

우리사회에서도 하루 확진자수 발생 30명 내외의 감소세로 줄은 듯 보이지만, 이태원 사태에서 보듯이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은 향후 몇 달간 지속될 것이고, 가을철에는 재유행의 가능성을 예상하는 전문가도 많다. 분명 쉽지 않은 싸움이고,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특별히 보건의료 돌봄 분야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나?

그동안은 기업의 운영도 기업 이윤의 극대화와 효율 중심으로 움직였으며, 노동자나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희생되어왔는데,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한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이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이 이번 코로나 19 대응에 선방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 역시 효율중심의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않다. 향후 사회 방향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건강, 생명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이 사회가 지속가능하다.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게 다음과 같이 향후 보건의료가 개편되길 제안한다.

## 2. 향후 보건의료 돌봄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

첫째, 사회적인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우리사회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높아, 노인가구에서 건강불평등 구조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도 건강보험 지출의 40%를 넘어 가파르게 증가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오히려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의료, 돌봄, 주거, 복지 등 여러 요구를 있지만, 정작 자기가 살아 오던 지역에서 이들 의료와 여러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긴 어렵다. 기존의 여러 서비스는 대개 분절되어있고, 연계 혹은 통합되어있지 않아, 이들 서비스를 받아보려 해도 전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 가족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가야 하니, 어려움이 말이 아니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인 까닭에 부모가 아프더라도, 집에서 병수발 들긴 쉽지 않다. 가난한 가족들은, 특히나 빈곤 노인가구는 의료정보에 더 접근하지 못하고, 평소 건강관리가 되지 않은 채, 천식, 당뇨 등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가정에서 혹은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요양병원에서 건강이 취약한 고령층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까닭에, 이번 코로나 19와 같은 글로벌 유행병으로 요양병원 고령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서 정신 장애인들의 피해가 또한 컸다. 상당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아플 때도 쉴 수가 없다. 아플 때 쉴 수 있고 아플 때 기본 소득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정신병원의 반인권적인 실상이다. 청도 대남병원 103명의 입원자 중 확진자가 101명으로 발병률이 무려 98%이다. 이중 사망자가 7명이다. 정신 장애인들은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오랫동안의 감금을 통해 황폐화되고 있다. 정신 장애인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점차 신체 기능을 잃게 돼 활력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신 병원인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신장애 대응의 방향을 탈수용화로 분명히 정하고, 지역에서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신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병원에서 지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반인권적인 요소를 지닌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둘째, 교회는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의 위기 앞에서 교회는 아주 무기력했다. 사회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려 모일 수도 없었다. 예배공동체와 시민공동체가 분리되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을 정하지 못했다.

사회적 위기 속에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원론적이거나 구체성이 없어 삶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 교회는 세계에서 규모가 큰 교회가 즐비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철저히 무기력한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일상에서의 예배와 경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세계와 일상생활에서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철저히 무기력할 뿐이다.

개인들은 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될 것인가? 이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두셋이 모이더라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협력과 공존하는 문화와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배제와 소외가 없는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무로 언급되어 왔다.

이는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수많은 시도와 헌신을 해온 것이 기독교사회운동의 큰 흐름임에 비하여, 90년 이후 정치적인 민주화 이후, 사회민주화의 진전을 위해서 사회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는 교회는 방향을 잃었고, 교회세습, 지역사회 헌신과 기여의 약화 속에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다.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때 우리사회는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고령화와 빈곤노인가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사회는 어떻게 이에 대비해야 할까? 커뮤니티 케어(통합돌봄)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정의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빈곤이 가져오는 끔찍한 현실 앞에 존엄한 삶에 대한 절실한 요구 속에 나온 것이 커뮤니티케어이다. 이 커뮤니티 케어는 고령화와 건강불평등이 심화되는 우리사회에서 고령화의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불평등을 완화시켜주고 감염병의 대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했던 유럽의 선진 국가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커뮤니티 케어에 직접 나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의 수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조사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들 돌봄 수요에 맞추어 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인력을 발굴하고, 서비스의 질과 역량 강화를 적극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교회는 소그룹으로 나뉘어 사회적 약자의 건강 돌봄에 나서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돌봄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도 지역 돌봄의 좋은 방안이다.

셋째, 한국사회와 교회는 보건의료, 돌봄의 개편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을 가야 해야 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증상이 가볍고 전파가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민들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위생 수칙(손 씻기, 공공장소

에서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모임 줄이기)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코로나 19의 전파를 차단할 수 없고, 환자를 위험군에 따라 분류해 신속하게 치료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다행히 시민들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차분히 대처해서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은 코로나 19 감염증 극복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외국에서 그 흔한 사재기 한번 없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 봉쇄를 하지 않고서도 시민들의 자발성과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 이를 해낼 수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의 유대가 우리사회가 가진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성숙한 시민들이 각 사회 분야에서 역할을 하게 사회 구조를 개혁시켜 나아가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로 내리고, 지방정부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보건의로 돌봄의 개편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시민들의 참여로 보건의료조직이 공공성을 높일수 있고, 민주적인 가치를 지니게 한다.

넷째, 사회구성원의 모두의 건강을 지킬수 있게 공공의료강화되고, 공적인 의료보험체계를 더욱 공공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적위기 상황에서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았던 것도 그 예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인구당 병상수가 많은 것이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대응에 큰 힘이 되었다는 식의 분석 기사를 내보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감염병 대처에 실질 역할을 한 의료시설은 공공의료 부문이었는데, 각 권역별로 공공의료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곳도 아직 많다. 의료의 공공성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닌 전국민 의료보험도 이번 코로나 19에 진가를 발휘했다.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이다.

현재 (5월 27일 기준) 확진 환자만 6,878 명이 발생한 대구에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10개에 불과하다. 국가지정 격리병실이 경상남도 전체에 4개, 경상북도에 3개, 전라남도에 4개뿐이다. 음압병실 설치비용은 국가지정 병상의 경우 3억 원이고 유지비용도 높아 평소에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압병실은 민간에선 유지하기 어렵고, 공공병원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실태는 어떤가? 병원마다 대개 10개미만 소수의 음압병상을 가지고 전국의 환자를 분산 수용해 치료해오고 있다. 당연히 감염병 환자들과 일반 환자 치료를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있다 하더라도 오로지 격리치료실만 있지 종합적 감염관리에 적합한 시설은 아니다.

공공기반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하다. 유럽과 일본 등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공으로 설립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아 적자가 나더라도 전문 인력을 훈련·교육하며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지만 사실상 하나도 진척시키지 않았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은 10.4%에 불과해 OECD 꼴찌로 민간의료의 의존도가 아주 심하다. 의료의 시장지향성이 가장 두드러진 미국조차도 공공병원 병상이 25.8% 수준이다. 특히 응급의료, 감염의료의 경우 그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민간에서 해당 시설과 인력을 유지하긴 어렵다. OECD 국가에서 공공병원의 비율이 평균 73%이다. 이 수준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20~30% 정도로는 공공의료 병상을 확충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 치료, 재활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하는 것 이어야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은 제도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다. 질병의 발병원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또 조기 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건강관리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차의료에서, 일정한 의료진에게 계속 진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통해 환자에 관한 각종 진료정보가 체계적으로 누적되고 이어져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방문 의료기관을 자주 바꾸고, 명의를 찾아다니는 왜곡된 의료이용 행태, 수시로 생겼다가는 없어져 버리는 의료기관들, 이와 함께 사라지는 진료기록들, 동일질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처음부터 문진과 각종 검사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나라 동네의원 시스템의 조건에서 의료의 '지속성' 개념을 떠올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차의료 의사가 환자에게 요구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등의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지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자 개인이 방임적 상황에서 스스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차의료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고, 소위 동네의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은 관계로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고, 환자의뢰체계의 부재로 인한 병원 의료이용에서의 혼선과 낭비, 의료전달체계의 미숙한 발달로 인한 의료기관의 종별을 뛰어넘는 무차별적 경쟁 등으로 낭비 조장적인, 비효율적 의료공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선진국들은 잘 갖추어지고 제도화된 일차의료시스템, 즉, 주치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전문의 중심의 현행 우리나라 동네의원체계보다 더 효율적이다. 동시에 국민주치의제도가 정착되어 있어야 일차의료의 정

립되며, 이를 기반으로 의료이용체계를 공고히 확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것은 양질의 포괄적인 일차의료이 작동하지 않고, 전문과목 중심의 분절화인 일차진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의료제공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일차医료를 재구성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치의를 두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개원의사들이 주치의 역할을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 생명신학포럼 주제발표 2

### COVID 19와 교회목회

김의신 / 광주다일교회 목사

#### 들어가는 말

네 번째로 여는 생명신학 포럼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맞이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삶에 꽤 많은 충격과 도전을 받았고 발상의 대 전환을 갖지 않으면 인류 생존마저도 힘들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COVID 19와 교회 목회’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변화에 따른 교회의 적절한 대응과 시대에 맞는 역할에 대한 나눔입니다.

쉽지 않고, 적지 않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낼 수 없겠지만 코로나19로 시발된 변화된 세계를 걸어가면서 교회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의 발제는 대안이나 해결 방법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가 일으킨 파장에 적실하게 반응하기 위해 함께 생각하고 싶은 내용들이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증폭된 교회를 향한 Challenge들에 대한 나눔입니다.

**전제 1.** COVID 19 이후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전제 2.** 새로운 일상(New Normal)과 함께 새로운 신앙생활(New Christian Life)도 준비해야 한다. 그 중심에 생명, 생태적 신앙, 신앙의 자리(공간, 시간 개념)의 변화, 교회와 신앙의 공적인 역할이 더욱 강화 될 것이다.

**전제 3.**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전으로 돌아 갈 수 없는 것, 더욱 강화 될 것과 약화 될 것,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구별하고 좀 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제 4.** 교회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에 좀 더 폭넓은 대화와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제 5.**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는 위기라기보다는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찾고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이며 이를 잘 선용한다면 한국교회는 보다 더 겸허한 자세와 개혁교회의

신앙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한국 사회 속에서 잃어버린 신뢰와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Challenge 1

### 예배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충격과 타격을 받은 중 하나가 예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켜왔던 주일성수라는 전통적 신앙 가치에 혼란을 주었고, 예배 출석, 헌금, 전도의 신앙의 덕목들이 흔들리면서 영상 예배, 온라인 헌금으로 변칙(?) 운영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적응하고 나름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운영되기는 했지만 이 또한 현장 예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예배에 대한 새로운 토론의 장을 열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현장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병행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매뉴얼이 필요하게 되고 지금의 예배의 모습도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상되는 변화들...

- \*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기간이 장기화 되고, 그 가능성이 상존함으로 상황에 맞는 예배의 형식과 내용으로 조율될 것입니다.
- \* 설교 방식과 내용의 변화 - 설교자의 신학과 목회 철학이 좀 더 드러난 차별성이 강조되고, 소통이 가능한 설교도 개발되며, 그 내용은 점점 시사성이 강하고, 삶의 자리에 대한 성서적 통찰력이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 \* 모이는 예배(현장 예배)의 차별성= 현장 예배에서만 경험 할 수 있는 콘텐츠나 예전이 요구되어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드리는 대안적 예배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장 예배는 보다 더 전통적인 예전과 교회력등 함께 모여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전 보다 풍성해 질 수 있습니다.

## Challenge 2

### 선교

90년대 이후로 유행했던 ‘해외 단기 선교’는 다른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해외로 집중되었던 관심과 자원이 국내와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현안으로 옮겨가게 될 것임



니다. 미전도 지역에 나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존의 선교에서 '환경 선교' '교육 선교' '문화 선교'로 선교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넓어지면서 교회 안에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 선교도 활발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생명신학포럼'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의 세미나나 포럼들이 생활 친화적으로 계획되어 개 교회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서가 가지고 있는 생명 존중 사상과 생태계 환경 회복 문화를 지역 사회 속에서 실천하고 구체화 하는 운동으로 확장해 가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 · 이웃과 함께 하는 선교

- 생명 존중 - 자살예방, 낙태 문제, 차별문제 등
- 자연 생태계 회복 - 환경 문제 나눔, 지구환경, 마을 환경, 교육 환경 등  
(교회 환경 운동 - 환경 바자, 빈 그릇, 재생용지 주보, 탄소 금식 등)
- 사회 생태계 회복 - 소외, 차별, 혐오 등 사회의 불균형 문제 해결과 사회 정의 실현 등

#### 참조) 광주 다일교회의 적용 사례들

- 주보를 재생 용지로:

재생용지로 주보를 만들려 할 때 광주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용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격도 일반 용지와 거의 다를 바 없고, 종이의 질이 그리 좋지 않아 교인들에게 이해와 의미를 나누고 실행했고, 이는 교회 안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 환경 소모임
- Wonder Cafe - 아동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문화 활동  
(생활 환경, 도시 환경, 지구 환경 주제로 각10주간)
- 창조절기 지키기(매해9월 첫주 - 대림절 전부)
- 사순절 탄소 금식

재생용지로 주보를 만들게 된 계기로 교회 안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친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의 가치를 지켜가는 일을 위해 모임이 만들어 졌습니다. 먼저 공부를 하고 간단히 실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하나씩 해 나갑니다.

- 종이 금식: 일년에 사순절과 대림절에는 종이 주보를 만들지 않음으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높이고, 더 나아가 주보 없는 예배로 드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로 인해 현재 잘 적용, 적응하고 있습니다)

- 주일 공동 식사의 '빈 그릇 운동' - 음식 쓰레기 줄이기
- 에너지 절약 - 여름 반팔, 겨울 내복 등 냉난방의 최소화
- 식당, 북카페에서 일회용 사용하지 않기
- 분 수거를 위한 구별된 쓰레기통 사용

이는 좀 더 큰 규모로 지속적인 행사로 정착하게 됩니다.

- 아나바다 바자: 마을 활동가들과 함께 가을 마을 장터를 마련하고 '아나바다고물'을 중심으로 한 바자를 엽니다. 꽤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고 교육, 홍보와 함께 하여 생태적 생활 환경에 대한 취지를 나누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 초록장터: 광주 근교 화순 담양 지역의 5개 농촌 교회의 친환경 생산물을 판매하는 장터입니다. 격주로 열리는 장터로 '농-도 생명망 잇기'의 좋은 사례가 됩니다.  
농촌 교회에게는 좋은 먹거리 생산에 격려가 되고 소비자인 도시 교회는 환경 선교에 참여하는 실천이 되었습니다.

### Challenge 3

#### 신앙생활의 패러다임 변화

코로나 19는 신앙의 패러다임을 큰 폭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간, 공간, 사람의 개념이 확대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시간은 주일에서 전일로

공간은 교회에서 가정과 일터로

사람은 목사 중심에서 교인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된 것으로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 교회 중심의 신앙을 삶 중심의 신앙으로
- 신앙생활의 공간에 가정이 주체에 부모의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 교회는 좀 더 작은 교회(안전한 거리를 가질 수 있는)로 나뉘어 현실적 지도력을 세워 지

방 분권형과 같은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 의존적인 신앙에서 의지적 신앙으로 세워 가기 위한 개별 신앙 훈련이나 제도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대형화되고 세속화되면서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적 공동체성’ (교인 관리에서 서로 돌봄으로)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인위적 공동체에서 관심과 관계적 공동체로 변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기존 교회는 지역과 나이에 따라 조직된 작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역, 속회, 가정교회, 순 등) 그러나 작은 교회라 할 수 있는 소그룹이 강조되고 그 역할이 많아지면서 관심과 지향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모임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회, 구역, 동교회 등 많은 그룹 모임들이 단순해지고 모임에 대한 불안함이 상승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외형적 규모가 중요했던 교회주의’를 퇴장시키고,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걸맞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조직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예기치 못하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 유연하게 변형 가능한 가볍고 작은 체질의 교회 등장을 앞당길 것입니다.

#### Challenge 4

##### 목양(Pastoral Care)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대면 심방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60대 이상 헌신된 교인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에게 목사의 심방은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대 40대는 다릅니다. 그 세대들에게 목사는 또 다른 의미의 존재이며, 심방에 대한 생각도 달라 새로운 방식의 소통이 요구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이 숨어버린 세대가 30,40대와 청년, 청소년 세대입니다.

이 세대와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기독교 신앙을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대로 세워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 SNS를 통한 소통
- 부담 없는 만남

-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대화와 진솔한 삶의 나눔 등

목사와 교인의 관계로 주일,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삶의 자리와 주중에 만남으로 인한 형성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Partnership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 Challenge 5

### 관심과 사고 지평의 확장

예언자를 통해서 통찰을 얻던 시대에서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자연, 사회과학자들이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된 현대 사회에서 성서적 통찰력과 함께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은 생명,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지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서와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사와 신학자들이 이제는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에 대한 심도 깊은 공부와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교회의 방향과 목회에 도움을 넘어 필수가 됨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교회 안에 환경 신학 뿐 아니라 세계사적 관심을 갖고 설교나 성경 공부,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나눔을 준비해가야 하는 목회적 요구도 요청 받게 될 것입니다.

### 나가는 말

짧은 시간에 다 담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앞으로 변화될 교회 생태계와 신앙의 모습에 대한 몇 가지 도전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것은 크게는 문명사적 대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 변화와 압박들 앞에서 교회는 순수성이 변질되지 않고, 정체성을 상실되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11 이후에 그 많은 변화와 불편함을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받아들이고 있는 인간의 적응력을,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인간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COVID 19 또한 우리에게 수많은 변화에 따른 순응과 적응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숭고한 사명과 시대와 역사 속에 세워주신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고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사회복지적 대응

이준모 / 인천 내일을여는집 이사장

1.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된 지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명)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매우 급속도로 전파된다는 것이고, 치사율이 3.4 정도 된다고 합니다.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고, 3월 11일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5월 22일 현재) 사망자수 통계를 살펴보면, 확진자 5,027,986명 가운데 누적 사망자수는 330,592명이고, 각 나라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사망률은 6~7% 수준입니다.

순위	나라	확진자수	사망자수	사망률(%)
1	미국	1,576,542	94,661	6.0
4	영국	250,908	36,042	14.4
5	스페인	233,037	27,940	12.0
6	이탈리아	228,006	32,486	14.2
9	프랑스	144,163	28,215	19.6
18	벨기에	56,235	9,186	16.3
24	스웨덴	32,252	3,895	12.1
39	일본	16,513	796	4.8
44	대한민국	11,142	264	2.4

\* 순위는 확진자 순위이다.

2. 국내 '코로나19' 발생과정을 살펴보면, 중국 우한의 소식이 국내에서 보도되기 시작한 뒤에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2월 23일에 감염병 위기경보[관심(해외 유행)→주의(국내 유입)→경계(국내 제한적 전파)→심각(전국 확산)]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되었고, 약 2개월 반만에 5월 6일부터 다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 발, 학원 선생 발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날 조짐이 있어 매우 경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복지 영역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넘어야 할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설들이 부분적으로만 개방되고 있습니다.

3. 지난 2월 23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된 이후, 사회복지영역에서는 모든 복지 시설의 업무가 올 스톱되었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소까지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천내일을여는집이 운영하는 시설은 민간 사회안전망 모델로 지난 22년간 운영되어 왔는데,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먹을 주고, 잠 잘 곳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잠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스톱된 것입니다.



지난 22년간 해인교회 3층에서 매일 점심을 제공하던 일이 중지되면서 교회 주변의 취약계층, 독거 노인, 폐지를 줍는 어르신(실버자원협동조합 조합원), 노숙인, 사회복지 종사자 등 130여명의 식사제공이 중지되었고, 거리 노숙인이 쉼터로 입소하는 것이 중지되었고, 시니어클럽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은 노인 1,590명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매일 서비스 대상자들(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열이 있는지 없는지,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외부활동을 자제시키고, 코로나 19 생활수칙을 알려주며 ‘사회적 거리’ 캠페인을 해야 했습니다. 거리 노숙인은 시설에 입소가 불가능하여 가능하면 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 고시원이나 임대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노숙인 쉼터 입소자들은 일자리를 잃어 가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쪽방 주민들은 매일 상담소에 있는 공동작업장에서 일하고, 점심식사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각자가 집에서 식사를 해야 했고 당연히 부실한 식사로 끼니를 때우게 되었습니다. 해인지역아동센터는 평상시 20여명의 아이들을 돌보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서 머물게 되었고, 맞벌이를 하는 일부 가정의 아이들 7명~9명 정도만 돌보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자원봉사자도 스톱되었고, 노인일자리나 자활 일자리 역시 스톱되어 2명의 사회복지사가 모든 행정과 학습지도, 식사지원, 코로나19 대응 교육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대면 상담을 중지하

고, 모든 상담은 전화로만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이후 아무래도 집에서 가족들이 대면하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가정의 갈등이나 폭력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모든 사회복지 영역이 축소되고 중지되는 상황에서도, 거리노숙인의 문제는 식사할 곳도 없어지고 쉼터에 입소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인천광역시도 주 1회 하던 아웃리치를 주 5회로 늘려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준 금액은 고작 1개월 치 1천만 원의 식비였습니다. 모금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2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비행기 운행이 거의 올 스톱되고, 여행객이 절대적으로 줄었고, 지역에서는 백화점이나 중소 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신천지 사건이 매일같이 마스크에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사회활동이 급격히 축소되고, 종교에 대한 혐오나 기피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교회의 사회복지 영역은 날로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일에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와 주일예배의 실시 여부와 사회복지 시설과 교회에 대한 방역 등 여러 가지 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인교회와 내일을여는집을 중심으로 해 온 그동안 사역은 급격히 위축되고, 심지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까지 교회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도 영상예배로 대체되었고, 매일 아침에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것도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마스크 대란과 방역, 사회적 거리 캠페인 등 한국 특유의 자극적인 보도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노인친화기업 등)도 매출이 전년대비 1/5 수준으로 떨어졌고, 당장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문제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중 계양구재활용센터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었는데, 도농살림은 위기에 처해지고, 떡이랑 찬이랑은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4. 위기를 기회로!

2월말 경 아침 기도하는 중에 1998년 IMF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IMF 때 국가적으로 금모으기 운동, 실직자와 그 가정을 위한 쌀 나누기 등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나누는” 초기 내일을여는집 형성과정과 초대교회의 형성과정(행2장, 4장) 당시의 모습이 죽 흘러갔습니다.

그 날 아침으로 거리 노숙인 담당 실무자와 협의하여 인천의 부평역, 주안역, 동인천역, 인천 터미널을 중심으로 거리노숙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단 모금과 공동모금회 프로포잘(제안서), 푸드뱅크 연계, 사회복지협의회 연계 등을 협의하면서, 청년 사회복지사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모으는 일, 사회복지 종사자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 내는 일도 고려하여, 1)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요령을 법인 차원에서 매일 아침에 시달해 주고, 2) 대구 경북의 다른 복지시설에서 코호트 조치(시설폐쇄, 직원 퇴근 불가, 격리조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고 깨우쳐 주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하는 일이 중요했고, 3) 격주 목요일에 있었던 전체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시간에 영상으로 ‘고난과 인내’의 주제를 담은 CCM을 틀어 주고, 일반상식과 성경지식을 묻는 즉석 퀴즈대회를 진행하여 재미를 더하면서도 문화상품권으로 지원하고, 4) 교회 마당에서 도시락 식사를 나누며 간단한 게임을 진행하고, 5) 긍정적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축하’라는 상황 설정을 하고 이모티콘 대회를 진행하여 시상하는 등 격려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6) 거리 노숙인 사업을 전개하면서 실제적인 모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체 공개하면서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후 직원 전체 단톡에는 이모티콘으로, 리플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횟수가 2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리노숙인을 위한 아웃리치를 강화했습니다. 주 1회에서 주 5회로 늘리고, 그동안 예산이 없어 푸드뱅크로 들어오는 음료수나 간헐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먹을 것을 정기적으로 주자는 취지를 살려 일단 법인의 가용 예산을 투입하고 별도로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와 연계하여 마스크 제공이 시작될 무렵, 한 노숙인이 “마스크보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한 말이 비수가 되어 그 분의 말을 이슈 슬로건으로 정하고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고, 모금 상황을 매일같이 공개했습니다. 직원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의 상황에서도 한국 교회와 선한 후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한국중앙공동모금회가 협회 차원으로 지원하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제안서를 받아 주고, 인천사회복지협의회가 푸드뱅크에서 거리 노숙인을 위한 지원을 해 주는 등 하나 둘 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눈을 돌려, ‘계양구 사회적경제기업살리기 운동본부’를 종교계와 시민사회계에 제안하여, 3월 2일 첫 모임을 갖고, 7명의 공동대표와 약간의 집행위원을 두어 가동했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계양구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방이나 앞치마 등을 만드는 곳에 생산품을 마스크로 변경해서 해 줄 것을 요청하고, 거리노숙인에게 필요한 모든 마스크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외주사업에 맡길 수 있는 자원봉사 조끼 제작, 거리노숙인에게 줄 물품을 담은 가방이나 봉투 제작, 물티슈 등 실제로 매출을 올려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노인친화기업인 어머니 밥상에는 우선적으로 거리노숙인을 위한 도시락을 맡기고, 떡이랑 찬이



너무나 크고 심해서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교회는 혐오대상이고, 교회는 광기가 있는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 커다란 파도를 헤쳐 나가려면 이제는 “건강한 교회” 담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론이나 구호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관계의 개선으로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역 사회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2015년 9월 15일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 창립 기념으로 열린 「중소 교회를 위한 목회 세미나」에서 내린 몇 가지 결론은 1)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발 빠른 사역으로 동네 교회가 되어야 하고, 2) 삶의 어려움을 겪는 30~40대를 타깃으로 한 젊은 목회가 필요하고, 3) 삶이 어려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4) 전도와 성장을 벗어나 코이노니아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사회복지 선교만한 도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이며,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가 존재할 이유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 국민은 대다수가 교회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선한 이웃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역의 교회와 연합하여 활동할 수 있는 교회 단위에 사회복지선교위원회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둘째는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해서라도 교회에 적합한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적기업, 또는 이웃을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 프로그램을 하나씩만이라도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셋째는 교회의 정책 당회, 제직회, 교사 등에 맞는 사회복지선교를 위한 교육을 1회만이라도 실시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넷째는 전문사역기관과 연계하여 노회나 시찰회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공동 프로젝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선교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몇 개의 기관에 대한 연구와 사례에 대한 학습을 위해, 교회 당회원들이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교인들이 그런 교회들을 탐방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최고 경영자(CEO)이자 사회적 기업가인 폴 폴락(Paul Polak)<sup>2)</sup>은 "사람이 없고 재정이 없어 일을 못한다면 그 답은 현장에서 찾아라. 현장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사람도 만나고 돈도 만들어 진다"고 말했습니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절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과 열정(사랑)이 부족한 것이고, 이것은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작은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

다는그 자체로 참여하는 것이고, 변혁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다.

2) 폴 폴락, 『적정기술 그리고 하루 1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 박솔기 역, (서울 : 새잎, 2012)

# 코로나 이후의 선교적 변화

조샘 / 한국인터넷서브선교회 대표

이하는 20분 발제를 원고로 정리한 것이다. 이 원고는 아직 논문으로 쓰기 전 단계의 생각 정리로 2020년 6월 4일 생명신학포럼을 위해서 썼다. 발제를 들으실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급히 만들어진 것으로 인용이나 복사를 금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표에 사용할 이미지 일부도 이 원고 안에 포함시켰다. 쓰고 싶었던 얘기는 크게 두 가지였다.

1. 정말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2. 선교는 어떻게 변해야 하나??

발제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모두 다루게 되겠지만, 일단 이 원고를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시간의 부족으로 “변화”의 본질에 대한 논의까지만 그런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를 문장으로 다 다듬을 절대 시간의 부족으로 요약 형태로 제출한다. 포럼에 오신 분들의 양해를 구한다.

## I. 두 가지 질문 - 코로나는 무엇인가? 우리의 선교는 어떻게 변해야하나?

### 1. 하나님의 선교

코로나팬데믹이 가져온 변화는 전 세계적이며 동시에 충격적이다. 이 변화는 경제, 사회, 외교, 심리,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변화 가운데 우리의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

선교는 인간의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다. 골로새서 1: 19, 20절, 에베소서 1: 9, 10 절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 세계 전체의 회복과 화목과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선교로 본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팬데믹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서, 당신의 선하신 일 즉 선교는 하나님의 충분하신 자신감과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이 믿음 가운데 쓰여졌다.

### 2. 연구 질문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진다. 첫째 질문은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이다.

이 첫 번째 질문은 해석적, 현상적 질문이다. 코로나팬데믹이 가져온 변화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도 객관적이지 않다. 똑같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팬데믹이라고 해도,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다르며 또한 해석하는 방식 또한 다르다.

코비드가 가져온 전 세계적인 생각과 관행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의 선교는 어떻게 되어야할까?” 를 답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당위적이며 규범적인 답을 찾는 노력이다.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코비드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우리들의 선교를 상황화 contextualization 해야한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제도화된 선교의 관행이 아니라, 선교의 본질을 성찰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본질을 정리하고 이에 기초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선교를 얘기하려고 한다.

### 3. 방법론과 참고문헌

이 연구에서의 방법론은 연역이며,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기본 원칙들을 기초로 논리적으로 실증을 위한 가설들을 세우고 정리한 것이다.

또한 이 발표에 적힌 생각은 지난 두 달 동안, 국제 인터서브의 리더들과의 컨설팅이전, 네덜란드 인터서브의 “2025년 선교의 상상력” 보고서, 올해 5월 열렸던 인터서브 코리아의 이사회에서 논의된 “코비드 이후의 선교” 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

크게 세 명의 저술이 이 논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회학의 제도학파나 다른 초기 교회사 책은 여기에는 시간 편이상 적지 않는다. 또 같은 이유로 문장에 각주를 따로 달지 않았다.

첫 번째 책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이다. 변화의 메카니즘을 이해하는데 큰 틀을 제공한다.

두 번째 책은 크리스 아지리스 Chris Argyris 의 학습 이론이다. 아지리스는 하버드 경영학과를 중심으로 행동학습이론과 변혁에 대한 흐름을 이끌었던 대가이다. 이 이론을 코비드 바이러스가 가져

온 사람들의 학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워낙 많은 논문을 쓰지라 한두 개 논문으로 이 학습 이론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 하나를 고르자면, Argyris, C., Schön, D.A. 1978. *Organizational Learning: a Theory of Action Perspective*. Reading, Mass.: Addison-Wesley.

세 번째 책은 알랜 크라이더 Alan Kreider 의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이다. 신학자 하워드 스나이더가 2016년에 출간된 책 가운데 가장 우수한 저술로 꼽는 이 저서는, 초대 교회 기독교의 성장 이유를 꼼꼼히 실증하여 적는다. 이 글에서 나온 초기 기독교의 본질과 아비투스 Habitus 의 개념을 뒷부분 미래의 선교적 변화를 설명함에 사용했다.

## II.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 뉴노멀의 메카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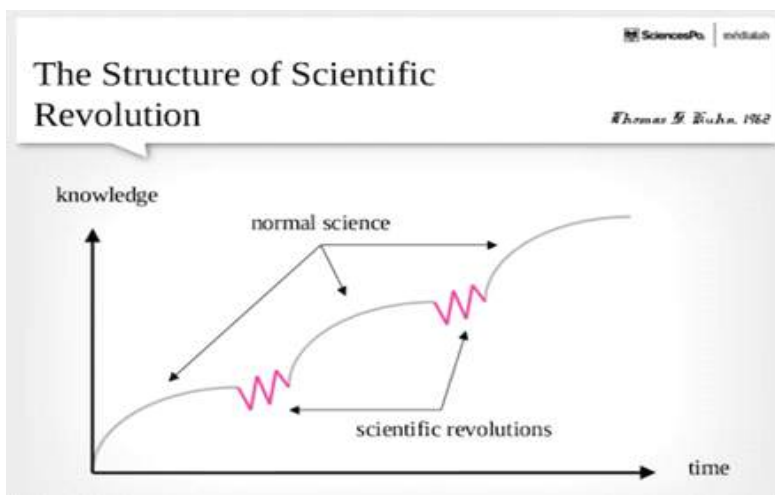
### 1. 패러다임 - Normal and New Normal

1962년에 발간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처음 소개했다.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을 담는다. 하나는 한 시대의 과학자들을 특징짓고 분류하는 관점을 명명함이다. 둘째는 비슷한 실험 방식, 행태, 리포트 쓰는 방식 등의 관행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전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관과 해석적 틀을 얘기한다면, 후자는 보다 관찰할 수 있는 행동적 방식의 공통점을 말한다.

토마스 쿤이 말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 두가지 모두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관심이 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세계관 즉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범위를 한 두 나라나 특정 문화적 영역의 전문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



[도표 1]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에 의하면,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단계적 이해와 합리적 소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변화는 점진적 진화를 거치지 않고 계단식으로 다음 단계로 건너뛰는 흐름을 가지며, 동시에 합리적인 소통이 아니라 다분히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합의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여진 패러다임을 그는 “정상 과학 Normal science” 이라고 부른다. “정상 Normal”이라는 말에는 “비정상 abnormal”인 과학을 암시한다.

변화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 뉴 노멀 new normal 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아이디어의 제시가 아니다. 사회적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환경을 설명하는 “설명력”의 매력과 더불어 시간이라는 역사성이 요구된다. 아래의 도표에서도 변화라는 Y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x 축에 시간을 놓고 있다. 그런 점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제시되었던 다양한 과학 이론들, 비주류, 비정상 abnormal이 뉴 노멀 new normal로 우선순위로 재배열됨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뉴 노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기 위해선, 이미 기존에 새롭게 제시되고 이미 일정 정도 퍼져있던 세계관과 관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2. 변화 메카니즘의 세 요소

이런 변화는 어떻게 올까?

토마스 쿤의 경우, 내부적 정치적 합의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지만, 사회학의 제도학파에서는 사실 외부적인 급격한 변화를 주목한다. 사람들이 그전의 노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외부적 충격이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한다.

토마스 쿤의 경우에도 위의 도표에서 보이듯 한 노말에서 새로운 노말로 넘어가는데 큰 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관행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코비드라고 하는 보건의 이슈는 금세 경제 공황이라는 2차적 변화를 가져오고,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관계에도 변화를 일으키며 근본적으로는 세계관과 관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 다양한 변화 중 어떤 것을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봐야할까? 이 연구에서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세계관의 변화에서의 변화를 말하며, 이 개인들의 다수가 같은 생각을 함으로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압력을 형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이기도 하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으며 그 변화가 선교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데 관심을 갖게 보려고 한다. 당연히 선교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선교에 있어서 변하지 않을 본질이 있고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과학의 경우에도 뉴턴의 기계적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양자 물리학으로 바뀔 때에 물리학의 기본적인 가정들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과학의 목적과 방법론에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자물리학을 얘기한다고 해서 불교나 힌두교의 논리를 갖다 붙일 수는 없다. 연역과 귀납의 방법론, 연역을 위한 수학적 접근과 귀납을 위한 측정과 실험과 데이터 수집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셋째, 글로벌한 세계관의 변화를 얘기할 때나, 그로 인한 선교의 변화를 얘기할 경우 모두, 이 변화는 우선순위의 변화로서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미 제시되었던 세계관과 새 실험에서 나온다. 이미 알려져 있으나,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거나 주저했던 것들이다. 이미 역사성을 갖고 있고 지지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것들 가운데 전체의 주류가 되는 패러다임적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 원고에서는 1번 변화에 대해서만 다룬다. 2번과 3번을 포함한 내용은 포럼 당일 발제 시간에 다루게 된다.

1. 변화 change
2. 본질 essence
3. 우선순위 정하기 priority

### III. 변화Change - 자아와 관계에 대한 사고 변화

#### 1. 변화의 세 차원

개인적으로, 지난 이 삼주 동안 여섯 번의 장례식이 있었다. 그중 내가 직접 간 것은 단 한번. 그 전 같으면 대부분 갔어야 한다. 굳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예의를 갖추고 사람을 만나는 게 꼭 바람직하지 않은 않아졌다. 놀랍지 않은가? 이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회적 변화가? 죽음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장례 문화는 정말 변화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사회성에 종교성과 영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

어항에 물고기들이 분비물을 배출하며 자신이 살기 좋은 물을 만든다. 완전히 새 물로 갈면 큰 충격이 되어서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물이라는 객관적 환경은 물고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물고기에게 재해석된 편한 환경으로 바뀐다.



문화는 인간들이 자연에서의 적응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합의된 방법으로 재해석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는 문화가 변화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이 사례는 자연적인 “변화”인 코비드 팬데믹에 대응하는 인간 문화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런 문화적 변화는 다양한 모양으로 일어나는데, 이 발표에서는 편의상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본다.

1. 대응적 변화 Reactive changes
2. 사회적 학습 Social learning
3. 개인 학습 Individual learning

첫째, 대응적 변화는,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가운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여준다. 근본적인 생각의 틀이 바뀐다기보다는,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긴다는 면에서 대응적 변화라고 명명했다.

둘째, 사회적 학습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느슨하게 얘기되었던 것들이 강화되거나 기존에 소수였던 세계관이나 관행이 전체 다수의 합의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셋째, 개인 세계관과 의사결정 패턴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를 개인적 학습 learning 이라고 하자. 이 변화 역시 과거 느슨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과 행동 패턴이나 사회적 관계가 강화되거나, 과거에 믿었던 세계관이 바뀌고 행동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변화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강화나 변화의 기초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의 변화를 얘기할 때도 이렇듯 다양한 색깔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발표나 소통을 할 때, 어떤 변화를 말하는지를 규명할 때 적절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제 세 가지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보자.

## 2. 변화 1 - 대응적 변화 Reactive changes

일단, 이번 연구의 주제는 코비드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환경적 변화에서 시작된다. 이 급작스러운 외적인 변화가 기존의 사회적 합의와 제도에 대한 도전을 일으켰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기존의 틀 안에서 대응하고 있다. 초기에는 각 나라들이 이미

갖고 있던 사회적 법적 경제적 구도 안에서 대응하던 것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유사한 변화를 겪으며 대응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전 세계적 경제 공황과 이어지는 실업이다. 공황은 가난한 나라에 더 큰 충격이 되곤 한다.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도 방역에 있어서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꺼려하던 서구 국가들도 점차 규제를 강화하며 보건을 통제적인 방법으로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차적인 반응과 더불어 다른 영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치외교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개헌을 하려던 일본의 아베, 재선을 노리던 트럼프의 정치적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 미중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며 한국은 신 냉전의 조짐과 함께 외교적으로 아주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 정치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여당과 정부의 총선 압승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정치역학구조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 하락이 시진핑 정부의 유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국경 봉쇄로 인해서 고립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일련의 변화들을 “대응적 변화 Reactive changes” 라고 하자.

### 3. 변화 2 - 사회적 학습 Social learning

팬데믹이라는 환경적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적 변화들이 가져오는 결과는 시간이 흘러가며 좀 더 깊은 차원에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이번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대응했음을 관찰한다. 하나는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시민 사회적 세계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유럽과 미국이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대응 자체는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이미 기존의 세계관과 관행에 기초해서 반응한 것뿐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이 가져오는 결과를 주목하며 정부와 사회와 사람들은 해석과 사고와 관행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유발 하라리는 전 세계가 전체주의적이고 반 세계화적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을 전망하고 있다. 그는 이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시민 사회적 참여와 세계화적 개방성을 계속 지켜나갈 것을 권하고 있다.

이 차원에서 언급되는 변화들은 우리들의 선교가 펼쳐지는 상황을 구성하게 되기에 이런 변화들을 성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런 변화의 다양한 가능성들 중 몇 가지를 나열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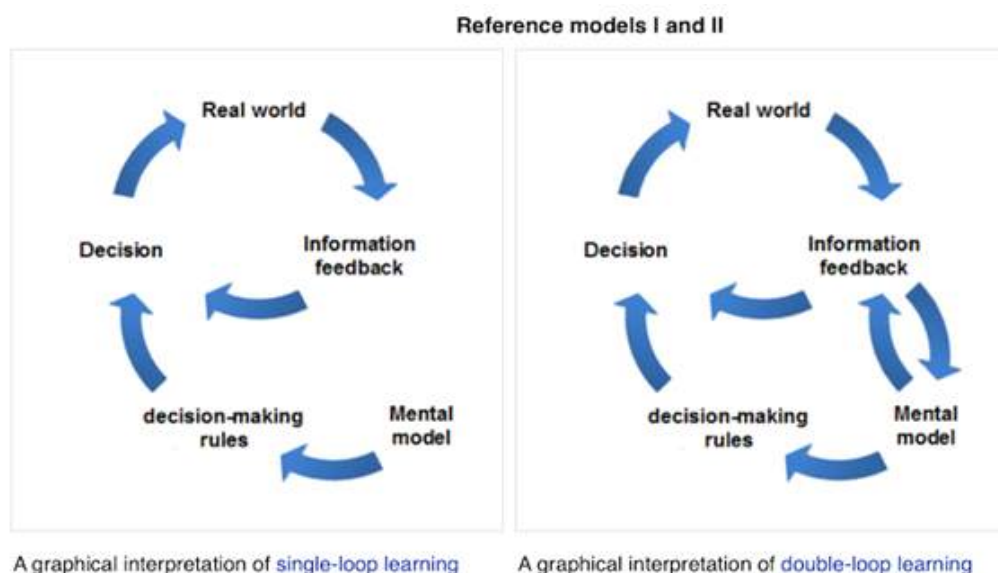
- 온라인과 가상현실의 확장
- 세계 경제의 생산 사슬의 탈 중국화와 다각화
- 리바이어탄 leviathan 즉 공익을 위해서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는 전체주의적이고 통제적인 정부의 부활
-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빅브라더식 정부기능
- 세계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반세계화 및 국가주의의 강화
-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근본적 변화로 인한 다자적 외교관계의 등장

이 발표에서 살펴보려는 선교의 변화 역시 위에서 나열한 변화와 같은 사회적 학습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적 학습이 패러다임의 형태를 갖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이를 인지적으로, 규범적으로, 규칙으로서 제도화할 때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에, 패러다임적인 변화에 있어서 출발이 되는 것은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코비드팬데믹 상황 가운데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코비드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인 차원에서 발생한 변화가 출발점이 되겠다. 이런 면에서 이 개인학습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 4. 변화 3 - 개인 학습 Individual learning



[도표 2] 단순순환학습과 이중순환학습

사회적 학습에 있어서 개인적 학습은 기초가 된다.

크리스 아지리스 Chris Argyris 는 이 학습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위 도표에 나온 단일순환학습 single-loop learning과 이중순환학습 double-loop learning이다.

왼쪽의 그림은 단일순환학습으로서 개인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 Mental model이 만들어내는 의사결정의 룰 Decision-making rules가 바뀌지 않은 채, 세상의 변화 Real world에 대응하는 결정 Decision을 하고 피드백 Feedback을 받아서 다시 개선하는 학습을 말한다.

오른쪽의 그림은 이중순환학습으로 세상의 변화가 한 사람의 사고와 의사결정의 룰을 바꾸고 동시에 피드백을 통해서도 변화가 생기는 학습을 말한다. 이런 개인의 학습이 한 사회 안에 다수의 형태로 학습이 발생하여 이후 제도화되는 것을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개인 학습 자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니다. 사회적인 학습이 역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 학습은 사회적 학습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사회적 학습이 전체 사회에서 인지적으로 규범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인 힘을 가지게 될 때 이를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5. 패러다임의 변화: 개인 중심성의 규범화, 최소한의 관계

이번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세계 사람들이 함께 겪으며 어떤 사고와 관행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번 상황의 변화는 단순히 질병과 보건 만이 아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공황과 실업이 따르고 있고, 미중 갈등의 치킨게임 가운데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외교적 불안감을 겪고 있다. 이 극도의 불안감을 겪을 때 개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철저한 자기 보호와 개인으로서의 자아가 더욱 강화된다.

자신이 속한 대가족이나 민족이나 종교나 국가를 넘어서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독립된 개인으로 사고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인지적 틀과 사회적 규범이 될 뿐이라 다양한 정치 제도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긴 인간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6C 종교개혁 이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독립된 개인의 사고가 성경의 확산과 함께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런 사고가 실제로 정치적인 모습을 처음 갖추게 되기까지는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의 개혁 신앙의 확장이 명예혁명 Glorious Revolution 에 까지 10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했다. 이 기간에 만들어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언약 사상이었다. 이는 왕권신수설을 믿는 중세 봉건의 질서를 거슬러 왕의 권력을 법 안에 제한하는 동시에 진행되던 시기,

이런 언약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후 민주주의의 출발이 되는 시민계약설의 기초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서유럽의 다양한 삶 가운데서 집단정체성을 벗어나 개인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상호 기대하는 문화와 제도들이 자라남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다른 나라 들까지 전파됨에도 아주 다른 속도를 보여 왔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정치 제도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G2가 된 중국은 여전히 시민사회로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일본 역시 이번 코비드 대응에 있어서 국가의 올림픽이라는 집단 목적을 위해서 개인들의 검사를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들이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문화나 나라에 관계없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들의 이런 성향이 오히려 존중하고 받고 격려 받는 것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전히 많은 사회에서는 전체의 질서나 과거의 전통 등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개인의 자기중심성이 집단의 의사 결정할 때 규범적으로 중요시 되지는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코비드팬데믹이 위의 도표를 근거로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자. 이 도표는 2020년 5월 24일 전 세계의 코비드 확산을 국가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이 도표에서 중국 다음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이다. 7만 명이 넘는다. UAE- 3만. 카타르 - 4만 명. 쿠웨이트 - 2만. 작은 도시 국가라는 걸 고려할 때 국민들의 불안감은 적지 않을게다. 이란 - 13만 명, 터키 - 15만 명, 파키스탄 - 5만.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같은 인구대국 이슬람 국가들의 확산 속도도 적지 않다.

이슬람은 강력한 집단주의 종교이며 그 집단성이 복음전파에 있어서 견고한 진이 되어왔다. 반면, 전염병은 개인의 안위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슬람 전체가 세계화와 서양식 개인주의에 눈을 뜨며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2010년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었다. 그 다음해부터 시작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IS 라는 긴 전쟁이 있었는데, 이는 앞서 일어난 서양식 개인화에 대한 반동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개인주의를 용납지 않았던 이슬람이 이제 이 코비드팬데믹 앞에서 하루에 다섯 번씩 드리던 기도를 이 종교가 생겨난 지 처음으로 중단하는 사태를 지나가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무슬림들은 어떻게 변해있을까?

개인으로서의 자아 발견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는 팬데믹의 공포와 더불어 개인의 안녕과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경험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안녕과 보호를

#	Country, Other	Total Cases	New Cases	Total Deaths	New Deaths	Total Recovered	Active Cases	Serious, Critical	Tot Case 1M pop
14	<a href="#">China</a>	82,971		4,634		78,258	79	9	
15	<a href="#">Saudi Arabia</a>	70,161	+2,442	379	+15	41,236	28,546	339	2
16	<a href="#">Chile</a>	65,393	+3,536	673	+43	26,546	38,174	1,062	3
17	<a href="#">Mexico</a>	62,527	+2,960	6,989	+479	42,725	12,813	378	
18	<a href="#">Belgium</a>	56,810	+299	9,237	+25	15,155	32,418	259	4
19	<a href="#">Pakistan</a>	52,437	+1,743	1,101	+34	16,653	34,683	111	
20	<a href="#">Netherlands</a>	45,064	+176	5,811	+23	N/A	N/A	227	2
21	<a href="#">Qatar</a>	42,213	+1,732	21	+2	8,513	33,679	177	14
22	<a href="#">Ecuador</a>	36,258	+430	3,096	+40	3,557	29,605	208	2
23	<a href="#">Belarus</a>	35,244	+941	194	+4	13,528	21,522	92	3
24	<a href="#">Sweden</a>	33,188	+379	3,992	+67	4,971	24,225	265	3
25	<a href="#">Bangladesh</a>	32,078	+1,873	452	+20	6,486	25,140	1	
26	<a href="#">Singapore</a>	31,068	+642	23		13,882	17,163	8	5
27	<a href="#">Switzerland</a>	30,725	+18	1,905	+2	28,000	820	51	3
28	<a href="#">Portugal</a>	30,471	+271	1,302	+13	7,705	21,464	80	2
29	<a href="#">UAE</a>	28,704	+812	244	+3	14,495	13,965	1	2
30	<a href="#">Ireland</a>	24,582	+76	1,604	+12	21,060	1,918	54	4
31	<a href="#">Indonesia</a>	21,745	+949	1,351	+25	5,249	15,145		
32	<a href="#">South Africa</a>	21,343	+1,218	407	+10	10,104	10,832	119	
33	<a href="#">Poland</a>	20,931	+312	993	+11	8,977	10,961	160	
34	<a href="#">Ukraine</a>	20,580	+432	605	+17	6,929	13,046	256	
35	<a href="#">Kuwait</a>	20,464	+900	148	+10	5,747	14,569	192	4

[표 1] 코비드팬데믹 국가별 비교표

일순위에 놓고서 전체 사회를 생각하는 인지적 틀이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번 전 세계적 경험은 글로벌 패러다임으로서 개인의 중심성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자기중심성의 규범화 Normalization of self centeredness” 라고 부른다.

두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 첫 번째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자기중심성 가운데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해도 피치 못하는 최소한의 관계성이 있다. 이렇듯 사람들 사이에 최소한의 적은 숫자의 관계성을 맺으려는 인지적, 규범적 틀이 나타나고 또한 사회적 법

적인 규칙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두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를 “최소한의 관계” 라고 하자.

이런 최소한 관계에도 네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다. 그 첫 번째는 경제활동이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는 것은 질병 못지않게 실업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사람들 간의 대면이 온라인으로 되건 오프라인과 함께 섞여서 진행되는 변하지 않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서 최소한의 관계성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이를 “경제적 관계” 라고 하자.

둘째,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져가는 상황 가운데 이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감시하고 방역을 해줄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중요함을 다 같이 경험하고 있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불황이 시작되어온 이래로, 각 나라의 정부들은 대부분 통화량을 늘림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 모두 경제활동을 위한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개인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공적 기관들의 통제와 감시를 기꺼이 받아들일려 한다.

그러나 이런 공적 기관의 통제력 강화가 전과는 다른 양상을 갖는다. 전의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나 종교적 근본주의들은 공동체의 위상과 힘이 커지는 것을 자신들의 상승으로 여겼다. 그러나 현재의 공적 기관의 통제력 강화라는 면은 개인 시민들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합의에 의해서 운영될 뿐 아니라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강한 비판과 변화를 가지게 된다. 이렇듯 개인 시민들이 이번 과정을 거치며 갖게된 공적 기관의 통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개인 안전을 위한 공권력의 강화” 라고 하자. 보통 이런 변화는 국가 전체주의와 정보 장악의 형태로 나타나기가 쉽다.

셋째, 이번 과정을 거치며, 전 세계의 사람들은 나라 단위에서의 통제와 차단이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는 속수무책임을 경험했다. 전염병과 같은 보건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 환경보호 등의 이슈에 있어서는 글로벌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공기, 물 등등 자연은 개인들이 사유화할 수 없이 우리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할 공공재 commons 인 셈이다. 이런 공공재의 보호 유지를 위한 글로벌적인 소통과 자발적 협력이 필요함을 전세계 사람들은 함께 경험해왔다. 이를 “공공재를 위한 협력 공감” 이라고 부르자.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공권력의 강화” 라는 면과 갈등적 측면을 가질 수도 있다.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관심이 한 국가의 바운더리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글로벌적인 공감은 자발적 시민 운동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쪽으로 움직일 수 있기에 한 국가의 통제권 밖에 있기가 쉽다. 유발 하라리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변화가 서로 갈등을 빚으며 공존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사회성은 위의 이유와 관계없이 관계성과 사랑을 위해서 만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요구한다. 코비드팬데믹의 위험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그전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의 교재 가운데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소수이

며 다소 배타적이며 가까운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은 원하고 또한 필요하다. 이를 “작고 깊은 관계성” 이라고 하자.

이상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사회적 학습이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개인 중심성의 규범화” 이며 둘째는 “최소한의 관계” 라고 하자. 이 전체 변화를 “자아와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고,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와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의미
1. 개인 중심성의 규범화 Normalzation of self-centeredness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우선시함으로 전체의 방향이 결정됨이 사회전체에서 당연하고 바람직하게 기대됨
2. 최소한의 관계 Minimal and necessary relations	a. 경제적 관계 Economic relations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과만 관계하는 것이 당연시되며, 그렇지 않은 관계들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괜찮은 것으로 여겨짐
	b. 개인 안전을 위한 공권력의 강화 Rise of public institutions for individuals' safety	사회의 구성개인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국가 및 기타 공적 기관이 정보 및 다양한 영역에서 통제력을 갖는 것이 받아들여짐

[표 2] 자아와 관계의 패러다임 변화

#### IV. 선교의 본질

이제 이상의 변화를 기초로 선교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얘기해보려고 한다.

우리들의 선교는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그 이후의 지난 시간 가운데 계속 다른 모양으로 변해왔다. “선교” 라는 종교적 틀이 계속 변해왔고, 또한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변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없는 선교의 본질이 있다. 그럴 때에만, 변화된 선교는 더 이상 선교로서의 의미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여하는 선교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이슈를 갖고 있다:



- 세상 속에서의 복음 증거
- 하나님나라의 공동체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어 세상으로 가고 그 안에서 삶과 전도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다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지며, 이 공동체적인 연결과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간이 모자란 까닭에 원고를 다 완성하지 못하였다. 일단 이 부분을 다음의 도표로 정리하는 선까지만 하려고 한다.

선교의 두 가지 본질		의미
1. 세상 속의 증거 Christian witnessing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파송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며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은 세상 가운데 증거된다.
2.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Kingdom community	a. 예수 안의 작은 펠로우십 Fellowship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따르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다양한 형태의 작은 공동체를 의미한다. 삶을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비슷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으며 숫자적으로도 친밀할 수 있게 작다. 한국의 지역 교회 가운데는 종종 구역모임이나 셀그룹 형태로 존재한다. 직장 신우회 형태나 선교단체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이 작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윤리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거가 이뤄지게 된다.
	b. 하나인 몸 One body	작고 다양한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몸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말한다. 한 지역교회의 전체 회중 모임이나 예배로도 나타나며 크게는 교단이나 로잔이나 WEA, WCC 같은 국제 협력기구 형태로도 보일 수 있다. 민족과 문화와 상황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거로 드러나게 된다.

[표 3] 선교의 두 가지 본질

## V. 선교 우선순위의 변화

이런 글로벌한 패러다임의 전환 가운데, 이제 선교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처음 시작에,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믿음을 전제로 하였다. 물론 이번 코비드 팬데믹의 시작과 확산에 우리 인간들의 무지, 욕심, 무분별이 한 몫을 했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신비 가운데 이번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선한 일을 이번 일의 진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는다.

또한, 이번 상황의 변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확장시키고 풍성케 한다고 본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 바울이 발견한 대로 복음은 우리에게 드러난 신비일 뿐 아니라 새로운 진리가 더욱 발견될 수 있다. 복음의 전파와 함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옴은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하여금 “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간의 문화적 한계에 매여서 다 담을 수 없었던 복음의 새로운 측면이 우리의 자각과 함께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

이런 점에서, 선교의 본질을 지키는 가운데 이번 팬데믹이 가져 온 글로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거론되고 문제제기 되었지만, 기존의 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덜 주었던 선교적 관행들에게 우선순위를 새롭게 부여한다고 본다. 반면, 개신교 선교에서 지난 이백여 년 동안 우선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졌던 다양한 선교적 관행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상대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게 된다.

표 4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리한 표 2와 선교의 본질을 정리한 표 3을 합쳐서 변화되는 선교 우선순위를 정리한 것이다.

시간 관계상, 이 표를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 표에서 주목할 것은 첫번째 종의 “자아와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라는 글로벌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열에 적은 세상 속의 복음증거와 하나님나라의 공동체라는 두 가지 “선교의 본질” 이 어떻게 반응하며 우선순위를 바꾸는 가를 정리한 것이다. 두 번째 종의 “선교 우선순위의 변화” 에서 “Up” 이라고 적은 것은 이번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한 선교적 관점이나 관행을 말한다. 반면 “Down” 이라고 적은 것은 이번 변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내려놓게 되는 선교적 관점이나 관행을 의미한다.

자아와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선교 우선 순위의 변화	선교의 두 가지 본질		
			1. 세상 속의 증거 Christian witnessing	2.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Kingdom community	
				a. 예수 안의 작은 펠로우십 Intimate fellowship in Christ	b. 하나의 몸 one body
1. 개인 중심성의 규범화 Normalization of self-centeredness		Up	제자도의 중심성; 질적 성장; 진정성 있는 관계로서의 전도; 현재의 삶과 관계로서의 복음 이해; 복음전도의 자발성과 유연성;	작고 진정한 관계의 소그룹 펠로우십; 현장의 다양한 관계	온라인 예배와 컨퍼런스
		Down	교회 개척의 중심성; 양적 확장; 노방전도; 내세적 영혼 중심의 복음; 복음전도의 전략과 효율성	대규모 모임; 중앙집권적 구조	오프라인 예배와 컨퍼런스
2. 최소한의 관계 Minimal and necessary relations	a. 경제적 관계 Economic relations	Up	BAM, 일터사역, 텐트메이커의 중요성; 평신도들의 리더십	세상 속에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함; 관계성에 기초한 재정적 상호의존성	현장에서의 자발적이고 초교파적이고 국제적인 파트너십
		Down	종교적 접근; 사역자들의 리더십	교회의 사역을 위해 함께 협력함; 교회 건축 및 프로젝트 재정 및 현금 후원	중앙에서 계획되고 통제된 단독 사역
	b. 개인 안전을 위한	Up	국내 다문화 사역; 공적이고 합법적인	현지인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현지인들을 세우고 함께

	공권력의 강화 Rise of public institutions for individuals' safety		통로나 일을 통한 관계나 사역; 현지인과 현지 교회를 통한 사역		일하는 파트너십
		Down	미전도 종족과 전방 개척; 종교적이나 비공식적 통로를 통한 관계나 사역; 파송 교회 나 교단 중심의 사역	선교사나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현지인들의 자립성이나 주도성이 약한 협력
	c. 공공재를 위한 협력 필요 공감 Cooperation for management of the commons	Up	환경, 평화, 교육, 의료, 다문화, 노인복지, 통일 등등 공공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총체적 선교	사회공공이슈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실천함	비기독교인들과 연대와 협력; 공공 이슈에 관한 신학적 성찰과 실천을 온라인을 통해서 나눔
		Down	교회개척 및 성장 중심; 개인 구원과 성공 중심	교회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함	기독교인들 안에서의 협력; 이런 이슈에 대한 개교회의 세미나
	d. 작고 깊은 관계성 Small and deep relationship	Up	가족 및 부부 및 우정 관계에 대한 성찰과 교육과 실천	작고 진정한 관계의 소그룹 펠로우십; 예배에서 나눔과 성례와 기도의 중요성; 미션얼 교회 운동; 다양한 문화의 작은 교회들	작은 공동체들의 연합과 네트워크; 온라인을 통한 연결
		Down	교회 내에서의 역할과 사역 강조	대규모 집회와 예배; 예배에서 설교의 중요성; 교회성장운동; 중앙집권적 교회; 단일문화적 대형 교회	중앙집권적인 대형 교회

[표 4] 선교의 우선 순위 변화

## 참고 문헌

- 오덕교. 장로교회사.
- 토마스 쿤. 1962. 과학 혁명의 구조.
- Argyris, C., Schön, D.A. 1978. Organizational Learning: a Theory of Action Perspective. Reading, Mass.: Addison-Wesley.
- Kreider, Alan. 2016. The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환경선교

유미호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 1. 첫 번째 글 - 코로나19와 상처입은 치유자

우리나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의 첫 감염자가 나온 지 100일이 넘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4월 30일 현재, 212개국에서 하루 8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매일 만 명이 죽어가며, 전체 확진자는 321만 명, 누적 사망자는 23만 명이나 된다. 온 세계가 멈추어 섰다.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없고, 가고 싶은 대로 다닐 수도 없고, 맘 놓고 물건을 사고팔 수도 없다. 그러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얼어붙었다. 백신 나올 때까지 이 상황은 앞으로도 2년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아직도 인류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두렵고 답답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 코로나19의 역설

일상이 멈춘 자리에는 두려움과 답답함, 아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람이 멈추니 자연이 되살아났다. 2007년 지구 온도 상승이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임을 밝힌 후, 2015년에 전 세계가 합의한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세상이 멈추니 덩달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배출량은 1/4로 줄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자동차도 비행기도 운항이 줄면서, 공업 지역을 뒤덮고 있던 유해 가스 구름이 걷혀 하늘이 맑아졌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관광객이 감소해 수상 택시 곤돌라의 운행이 줄면서 강물이 맑아졌다. 인도의 하늘이 맑아져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이 드러났다. 인적이 끊긴 해변에는 멸종 위기 종인 바다거북들이 산란을 위해 수천 마리나 찾아들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7년에 한해, 50년에 한 번은 사람도 땅(자연)도 쉬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강제로 쉬게 하셨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2020년은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의 멈춤이 지구에게 쉼을 가져다준 '지구 안식년'으로 기억될 것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후 온실가스 배출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증가할지도 모른다. 강제적 쉼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코로나19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공기, 같은 물을 마시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의식하게 된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이 야기한 기후 변화가 지구 평균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무심히 흘려들던 이들도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전염병으로 겪게 될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긴급히 내려진 조치에 잘 따랐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

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지구를 보면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적절한 삶의 양식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과 창조물 모두의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길 기대해 본다.

## 인류의 전염병과 지구의 건강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에 코로나19에 대해 전 지구적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다. 홍콩독감(1968년)과 신종인플루엔자(2009년)에 이어 세 번째 선언이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새로운 질병이 아니다.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종의 벽을 넘어 인간을 위협하는 데에는 분명한 원인 제공자가 있다. 대개 박쥐를 주목하지만, 아니다.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인수 공통 감염병 대부분이 그렇듯, 인간이 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해 동물들과 그들이 사는 세상을 건드림으로써 전파된 바이러스가 일으킨 질병이다.

여기에 또한 기후 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sup>3)</sup>. 이상 기후가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살 공간을 잃은 야생 동물이 인간 거주지나 목축지로 이동하여 사람들의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 80년간 유행한 전염병의 70%가 야생 동물에 의하여 생긴 것들이라고 한다.<sup>1)</sup> 에이즈는 유인원, 조류인플루엔자는 새, 신종 플루는 돼지, 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왔다. 관련하여 인간에 의한 숲의 파괴도 바이러스의 전파를 부추기고 있다. 숲 안에는 인간이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바이러스가 있다. 늘 숲에 살던 야생 동물에게는 별문제가 아니지만 인간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에볼라, 에이즈, 사스, 뎅기, 지카 바이러스가 그 예다. 또한,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한 지구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가면, 지구의 회복력이 상실되고 빙하가 다 녹게 되어 고대의 바이러스까지도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미뤄둔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바로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고 돌보는 길이다.

그런데 당면한 코로나19와 달리 기후 위기는 아직도 미래의 일로 여겨지는 듯하다. 이미 수억의 사람들이 기후 위기로 응급 상황을 맞았는데도,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긴급한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한목소리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지구를 회복 가능한 상태로 지킬 시간은 겨우 8~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치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sup>4)</sup> 이 계획을 시급히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이 지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3) 그린피스, “과학자들의 경고,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2020. 2. 25.)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2074/blog-health-climate-virus/>

4) <https://news.joins.com/article/23028237>

한편, 인간이 원인이 된 동물 서식지 파괴와 기후 변화로 대규모의 생물 종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생물 종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sup>5)</sup> 서식지 침해나 기후 변동으로 종들이 서식지를 이동하면서 면역력이 없는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인류에게 일어나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은 야생 동물에 대해 몇 가지 조치를 하게 되었다. 불법 야생 동물 밀매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축이나 가금류로 간주되지 않는 야생 동물 거래만이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야생 동물을 먹는 것도 금지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공간인 아직 남아있는 야생의 공간 숲을 보전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와 다른 생물 종들이 계속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지구가 우리에게 건네는 이와 같은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의 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두려움 안에서 위기를 마주하고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가능하고, 필요만큼 누리며 모두가 골고루 누리게 해야겠다는 ‘자기 선언’이 가능하다. 우리 안의 욕망은 한 번도 줄어든 적 없으니 말이다.

### 코로나19와 일회용 쓰레기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멈춤으로 지구가 되살아 난 반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용기, 비닐봉지와 포장재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오고 있다. 생활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폐기물 배출량이 명절 때 배출하는 양보다도 많다고 한다. 수량도 수량이지만 그동안 애써서 이루어 왔던 분리배출 습관이 흐트러지고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가 되면서, 일회용 컵을 수년 안에 퇴출하기로 했던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였고, 그러자 식품업소와 커피 전문점은 물론 시민들이 거리낌 없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배달 음식 및 택배로 인한 포장 쓰레기도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벅했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더구나 요즘 배출되고 있는 일회용품은 사용 후 깨끗하게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원자재값이 떨어져 폐지나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선별해 이익을 얻는 재활용 업체들의 수익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 처리할 양을 줄이려면 사용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의 시대이니 내가 쓸 물건을 더 가지고 다니고, 위험한 곳이 아니면 면 마스크를 쓰고, 택배 포장재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 그리스도인, 코로나19의 상처 입은 치유자

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295366/>



반복될 수 있다고는 하나, 코로나19는 결국 지나갈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시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복귀할 것인가? 지구를 해치면서까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일삼고, 육식에 길든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구상에서 다른 창조물들과 함께 숨 쉬며 번영하기를 추구하는 변화된 삶을 추구할 것인가?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마 5:4)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 보자. 나와 우리가 입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지구의 안녕’을 물어 보자. 나뿐 아니라 지구 이웃이 입은 상처와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상처는 아물지 몰라도, 그 고통과 상처가 지구와 지구 생명들을 치유하는 원천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구가 보내는 신호에 둔감한 채 마냥 달렸으니, 이제 멈추어 삶을 성찰해 보자. 혼자 그런 성찰을 하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몇 사람이 모여 함께 ‘지구의 안녕’을 묻는 ‘지구 돌봄 서클’을 만들어 보자.<sup>6)</sup> 지구가 아프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돌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랑으로 함께 묻는다면, 두려움과 불안함, 막연함에서 벗어나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이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에 상처 입고 무서워 떨었던 고통의 기억을 나누며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살아낼 용기와 지혜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구의 지속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 우리 안에 두려움을 사랑으로 걸어 내고 부추겨진 욕망도 씻어 낼 수 있는 길. 그 길은 코로나19의 상처를 안고, 기후 변화와 종의 멸종이라는 위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고 행동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렸다(이 글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발행하는 ‘좋은나무’에 기고했던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 2. 두 번째 글 - 코로나19 이후의 기후 회복과 생명살림

오늘날 지구가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고, 그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촌 재난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최악의 산불로 호주 절반의 숲을 태우고 수많은 야생동식물들을 타 죽게 한 호주 산불 역시 기후변화가 원인이었다. 자연이 인류에게 전하는 기후 위기의 경고등은 이밖에도 수도 없이 켜졌다. 지구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도가 상승해 살인적 폭염과 폭풍, 가뭄과 홍수, 산불, 해수면 상승뿐 아니라 식량문제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도 파괴돼 수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 수백만의 야생 생물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멸종했다.

6) <https://www.facebook.com/EcochristSalim/posts/2510333189232365>

##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부르짖음

그들이 사라져가며 낸 신음소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부르짖음이다. 코로나19도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구조신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생물종들은 우리가 야생의 숲을 파괴해 기후 재앙과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한 경우이다. 유엔은 지구의 균형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 백만 종이나 되는 생물종이 멸종했다고 말한다. 지구 기온이 오르는 오를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생물종들은 더 높은 고도로 이동하면서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다시피 코로나19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실은 야생동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가 겪는 고통이다.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감염병은 4.7%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WHO). 이미 우리나라도 흰줄숲모기와 진드기의 활동 기간이 늘어나 말라리아와 라임병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진작 지구의 아픔에 공감하며 대응했다라면 지금처럼 위급한 상황은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미 남극의 빙하는 40년 전보다 6배 이상 빠르게 녹고, 그린란드 대륙빙하도 기존 예상치보다 4배 이상 빠르게 녹는 등 지구가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머잖아 북반구 영구동토층의 메탄가스과 더불어 고대 바이러스까지 나와, 코로나19 이상의 재앙이 곧 닥칠 지도 모른다. 그때는 지구 회복력이 상실돼 무언가 대응하기엔 너무 늦다.

## 위기 극복의 시작은 관계의 회복

상황이 이러하니,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을 최대한 쓸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2007년 뒤늦게나마 인간의 전적인 책임임을 시인했으니,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이어 2018년에 채택한 ‘1.5도에 관한 특별보고서’만큼은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

위기를 피하려면, 서둘러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고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물종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로부터 해야 한다. 사라져가는 생물종 자체의 보존뿐 아니라 숲이나 바다 등 그들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일이 급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함께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 모두가 코로나19 그 이상의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면서, 기후위기가 코로나19 그 이상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귀 기울여 보자.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살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동하는 일상은 물론, 산업과 발전 그리고 산과 강과 바다를 개발하면서 배출해온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알게 되고, 우리의 일상과 사회시스템을 온실가스(탄소) 제로를 향해 전환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물쭈물할 새가 없다. 지구의 생태용량을 기억해내고, 석탄발전과 원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해야 10년 내 이산화탄소를 45% 줄일 수 있고, 2050년까지 순제로를 이룰 수 있을까 말까다.

## 위기에 대한 감각을 깨워 치유하는 행동을

안타깝게도 지구 회복의 시간이 8~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OECD 국가 가운데 최후진국 중 하나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나, 최선을 다하며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더하시리라 믿는다. 그러지 않고 계속 구조신호를 무시할 경우, 기후 위기는 반복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리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위기에 대한 감수성을 되찾는 게 우선이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고 마주할 수 있어야 지금껏 좇던 '풍요와 편리함, 성장'을 멈출 수 있다. 2060년이면 기후 난민이 14억 명, 2100년이면 20억 명이 될 것이라는 연구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가 과밀하고 삼면이 바다여서 다른 나라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 생존을 위해 이제 기꺼이 멈춰야 한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막8:17) 하시는 주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자. 위기에 대한 감각을 깨워, 기도어린 마음으로 아파하는 지구의 신음소리를 경청하되, 여럿이 함께 듣고 치유하는 행동해보자.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해야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의 영광의 자유'(롬8:21)에 함께 이르게 될 것이다.

## '지구돌봄서클'을 통한 생명 살림의 선택

어떻든 아픈 지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자신의 필요는 물론 지구의 생태용량을 기억해내고, '내 필요만큼 누릴 것'이라는 '자기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것은 필요 없다'고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그 같은 선언을 기꺼이 할 것이라 기대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다. 위기는 위기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함께 겪고 있는 이들의 생각과 감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자 각자가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원으로 둘러앉아 '지구돌봄서클'로 모여 본다면 다를 수 있다. 두려움에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전가 하지 않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지지하며 함께 행동하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진행자워크숍 및 안내서 문의: ecochrist@hanmail.net). 여럿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어놓고, 마음 열어 말하고 듣는 순간, 아픈 지구를 바라보시며 사랑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신 주님을 만나, '나와 우리, 후손을 위한(신30:19)' 생명 살림의 삶을 함께 선택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 지구를 구하는 기도와 매일매일의 탄소금식

40일 혹은 1주간의 '탄소금식'을 반복해서 훈련해도 좋다. 기후 위기는 결핍이 아니라 과잉에서 발

생한 것이니,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소소한 것일지라도 지구 온도 상승을 막는 것이면 무엇이든 최선으로 줄일 일이다. 40일 동안 날마다 하는 탄소금식의 실천자료(포스터와 카드뉴스, [blog.daum.net/ecochrist/549](http://blog.daum.net/ecochrist/549))가 도움이 될 것이다. 매주 하나씩 혹은 한 주간 동안 요일별로 실천하는 것도 있다. '1) 아무 것도 사지 않기, 2) 일회용(플라스틱) 금식, 3) 전기 사용 줄이기, 4) 고기 금식, 5) 전등 끄고, 기도의 불 켜기, 6) 종이 금식, 7)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들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앙적으로 깊이 성찰하며 실천하고 싶다면, '지구이웃과 함께 하는 40일의 묵상여행(도서출판 동연)'을 떠나보는 것도 방법이다.

'크리스찬어스아워(Christian Earth Hour, [blog.daum.net/ecochrist/619](http://blog.daum.net/ecochrist/619))'를 따라 지구를 구하는 기도를 생활화해 봐도 좋다. 그달 그달의 환경력에 맞는 주제를 알려 매일매일 행동하게 하고, 마지막 주 금요일 8시에 15분씩 침묵기도 중에 하나님과 지구 이웃 앞에 삶을 점검해보자<sup>7)</sup>. 반복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다 보면, 피조물이 고통 받게 하는 일은 기꺼이 덜어내게 될 것이다. 함께 행동할 힘과 용기도 생겨날 것이다. 당장 필요만큼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선택적으로 비워가며 부족한 이들과 나누도록 이끄는 지혜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 존중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일이 최우선의 기도요 삶의 우선과제가 되길 기도한다. “주님, 우리가 선물로 주신 지구를 최우선으로 돌보고 가꿀 수 있게 도우소서. 나와 후손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게 도우소서. 아멘” (이 글은 신앙계 ‘6월호에 기고했던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

7)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은 환경력에 맞춰 첫 주일을 '지구묵상주일'로 지키되, 각 주제에 따른 성경말씀과 기도문, 묵상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1월(눅12:29, 지구가족의 날), 2월(약5:10~11, 습지의 날), 3월(겔47:9/ 물의 날(3/22)/ 은총의 선물 물), 4월(눅13:19/ 종이 안 쓰는 날(4/4), 지구의 날(4/22)/ 반려식물), 5월(창1:22/ 생물 다양성의 날(5/22), 바다의 날(5/31)/ 층만한 바다), 6월(롬8:19/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녹색그리스도인), 7월(고전8:9, 롬8:21/ 비닐봉지 없는 날(7/3)/ 플라스틱프리), 8월(시37:5/ 에너지의 날(8/22)/ 쉼과 힘), 9월(행9:3/ 자원순환의 날(9/6), 차 없는 날(9/22)/ 에너지전환), 10월(창1:25/ 세계 채식인의 날(10/1), 세계 동물의 날(10/4)/ 반려동물), 11월(히13:5/ 환경 착취 예방의 날(11/6), 아무 것도 사지 않는 날(11/29)/ 녹색구매), 12월(사11:1/ 세계 토양의 날(12/5), 성탄절(12/25)/ 그린크리스마스)

#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 그리고 시민운동

김승무 /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 I. 들어가는 말

인간의 탐욕과 인간중심적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위기가 이제 더 이상 일부 선각자들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북극빙하 붕괴, 남극 오존층 구멍, 쓰나미 등을 보며 롬 8:22의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을 떠올렸는데, 코로나19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와 닿는 현실이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는 변화되고 있고, 시민운동도 변화된 한국사회와 교회에 맞춰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발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한국사회와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시민운동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와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 II. 코로나19 이후의 한국사회의 변화

### 1. 정치

#### 가.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 1) 중앙 집중강화와 지방자치제도 퇴보

가) 지방정부의 능력부재(집행, 의사결정, 조직체계 부족 등)에 대한 실망감이 큼

나) 지방정부의 권한확대는 책임 능력에 대한 신뢰회복 후에야 가능

①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증가

② 행정집행 능력의 부재 확인

##### 2) 정부기능에 대한 요구 증가

가) 지방정부의 행정 투명성에 대한 비판 증가

나) 정부(중앙, 지방)의 긴급지원금 지급은 세금의 효용, 보편복지의 필요성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 증대 요구로 나타날 것임.

#### 나. 대책

##### 1) 지방정부의 혁신

가) 권한 요구 이전에 책임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무능, 무책임)

나)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등 행정 혁신에 대한 적극성 부족

##### 2) 대안 정치세력의 성장

- 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능력 요구(의회, 정당)됨.
- 나) 지방선거 제도 개혁(소선거구제→완전비례제, 중·대형 선거구제 등)으로 행정부 견제 및 혁신 유도 필요
- 다)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및 지방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2. 경제

### 가. 산업

- 1) 온라인 유통자본의 성장
  - 가) 음식업 등 자영업의 하청화
  - 나) 배달업의 증가와 유통자본(요기요 등) 착취(주문 대행 수수료)
  - 다)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 악화
- 2) 도·소매업의 쇠락
  - 가) 온라인 유통자본의 시장장악
  - 나) 유통채널의 변화(오프라인→온라인)
- 3) 골목 영세자영업 몰락
  - 가) 소득감소(노동자, 서민층)에 따른 매출감소
  - 나) 임차료 인상과 인건비 상승
  - 다) 소비행태 변화
    - ① 오프라인 축소(→ 온라인 구매 증가)
    - ② 결제방법 변화(→ 현금사용 급격한 축소)

### 나. 물가

- 1) 공산품 가격 상승
  - 가) 소비 부진에 따른 이익 감소를 가격 인상으로 벌충하려는 대기업 횡포
  - 나) 가격 담합, 품질 저하, 수량 감소 등으로 나타남.
- 2) 공공요금 인상
  - 가)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버스, 택시, 전기, 가스 등)
  - 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복지서비스 요금 인상

### 다. 노동자의 소득 감소 및 가계 부채 증가

- 1) 가계 소득 감소
  - 가) 기업 경영악화를 노동자에게 전가(고통분담론)하는 임금삭감, 무급휴직 증가, 해고요건 완화
  - 나) 한계기업 등 중·소기업 부도에 따른 실업 발생
  - 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부족에 따른 만성적 실업
  - 라) 대기업 채용 축소
  - 마) 자영업 소득 감소

- 2) 가계 부채 증가
  - 가) 노동소득감소, 영세자영업 소득감소
  - 나) 대출이자부담 증가

라. 대책

- 1) 가계 소득 증대
  - 가) 노동자의 소득 보전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 나) 기본소득 도입(응급대책)과 완전고용 실현
  - 다)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확대(사회서비스공공기관 설립 및 직영)
  - 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마) 최저임금 대폭 인상(중·소기업 지원)
- 2) 가계 지출 감소
  - 가) 전·월세 대출 확대(저금리, 부동산 구입 자금 제외) 및 임차료 인상 억제
  - 나) 교육비 인상 억제(고교무상화 확대, 대학등록금 인하, 사교육비 인상 억제)
  - 다) 물가관리 철저(공산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등 엄벌)
- 3) 정부의 재정 정책
  - 가) 국방비 축소(무기구입 취소, 무기개발 중지)
  - 나) 건설분야 재정 지출 대폭 축소(신규 사업 중지 및 추진 규모 축소)/사회서비스시설 확대
    - 다) 부자증세(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상 및 누진율 개혁) 등 조세개혁
- 4) 기업 정책
  - 가) 대기업 지원 축소 및 법인세 인상(대기업 사내유보금 감소)
  - 나) 중·소기업 고용 안정 및 정책 자금 지원 확대(저금리)
  - 다) 불법 해고 등 고용 안정 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 5) 경제 주체(노동자, 소비자)의 권리 보장 및 확대
  - 가) 노동이사제 도입(노동자, 주민 대표의 기업 경영 참가)으로 오너리스크 견제
  - 나)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는 각종 법률 개정
  - 다) 소비자 권리 확대(대기업 횡포 예방(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6) 경제구조의 혁신
  - 가) 사회적 소유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확대
    - ① 기업의 경제 비중 축소와 사회적 경제 비중 증가 필요
    - ② 국영기업, 공기업, 협동조합 등 공적 경제 기구의 역할 증대
    - ③ 의료, 건설, 교육, 주택 등 공공서비스업부터 시작
    - ④ 토지, 주택에 대한 사적 소유 축소
  - 나) 생산, 유통, 소비 전 영역에 대한 공적 기능 확대

### 3. 문화

#### 가. 개인주의 확대

- 1) 보건 취약시 생존본능 발현(이기주의 극대화)
- 2) 공익과 사익간의 충돌 갈등 확대
- 3) 개인고립의 확대(혼밥, 1인 창업, 1인 가족)와 공동체의식(연대) 퇴조
- 4) 개인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이데올로기 갈등 심화

#### 나. 차별과 혐오 확대

- 1) 실업공포에 따른 차별(성, 세대, 이주노동자)
- 2) 국제정치 갈등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혐오 범죄 증가

#### 다.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이질감 증가

- 1) 삶의 영역 분리
  - 가) 주거형태(주거지역, 주거형태의 분리)
  - 나) 교통수단(개인교통의 확대와 버스교통의 축소)
  - 다) 소비형태(온라인소비 적응성에 대한 세대간 격차 증가)
  - 라) 교육기회(온라인교육 기회 불평등)
- 2) 세대 갈등의 증가
  - 가) 자산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을 가져왔음.
  - 나) 최저임금의 상당부분이 주거비를 통해 자산 소득의 원천이 됨.
  - 다) 임금소득이 자산소득을 따라가지 못함.
  - 라) 문화적 이질감보다 경제적 불평등의 간격이 더 큰 원인임.

#### 라. 대책

- 1) 사회적 관계의 재정립
  - 가) 차별과 혐오 행위에 대한 범죄화 추진
  - 나) 다양한 공동체 조직 등 사회연대 활동
- 2) 봉건적 요소 제거
  - 가) 경제적, 사회적 갑질
  - 나) 성차별(임금, 기회)
  - 다) 학력차별(임금, 기회)
  - 라) 언어폭력(반말)

## Ⅲ.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의 변화

### 1. 예배형식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 교회관의 변화

#### 가. 예배의 본질과 방법의 문제

- 1) 특정지역에 함께 모여 예배



- 2) 각자 집에서 가족단위 또는 개인예배
- 나. 교회의 본질과 형태의 문제
  - 1) 지역교회
  - 2) 특정집단(청년)교회

## 2. 전통적 교회관의 변화에 따른 신앙생활형태(방법)의 변화

- 가. 신앙의 본질과 형태(방법)의 문제
  - 1) 하나님과의 관계
  - 2) 이웃과의 관계
- 나. 파생된 여러 문제들
  - 1) 교제
  - 2) 교육
  - 3) 전도

## IV. 코로나19 이후의 시민운동의 변화

### 1. 시민운동 의제의 변화

- 가. 사회적 안전과 인권
  - 1) 사회적 재난상황 시 사회적 안전을 위해 개인의 인권을 희생/보류해야 하느냐
    - 가) 확진자/자가격리자의 인권 : 동선공개, 이동시 강력처벌/전자팔찌의 문제
    - 나) 의료진의 인권(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현 상황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
      - \* 시민(인권)운동과 부문(보건의료노동조합)운동의 갈등과 충돌
  - 2) 사회적 재난상황에서도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의 인권은?
    - 가) 비례의 원칙
    - 나) 최소제한의 원칙
      - \* 과도한 제한 금지, 필요 적절한 제한
      - #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다중시설에서 미 착용시 벌금 300만원 부과
- 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침해문제
  - 1) 집회 및 시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2) 최소 제한의 원칙
    - \* 집회 및 시위 금지 행정명령
    - \* 대구시장의 언론사 기자 고소고발 행위

### 2. 시민운동 실천방식의 변화

- 가. 대면 회의/SNS 회의

나. 집회, 기자회견/SNS상 의사표명(보도자료만 기자배부)

다. 항의방문/자료집 전달

라. 정책토론회/SNS 토론회

\* 시민운동의 현장성, 역동성 약화

### 3. 시민운동의 과제 및 교회의 역할

가.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라는 비판을 뛰어넘는 시민운동

1) 회원모집방식의 변화 필요 : SNS를 통한 회원모집 강화

2) SNS를 통한 홍보/의사소통 강화

3) 교인들을 다양한 분야, 영역의 시민운동에 연결 : 시민운동 지원/견제

4) (기독교)시민단체 직/간접적 지원 : 성서한국(광주/대전/대구), 희년함께 등

나. 사회적 재난대응 시 민주적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시민운동의 역할필요

1)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역할이었지만, 현대사회의 재난은 한 국가의 정부만이 아니라 국가 간 협력과 국가 내 여러 주체들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전문관료 중심의 관리적 재난 대응이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 시민 간 상호협력적 대응과 신뢰구축을 통한 거버넌스가 재난 극복을 위한 중요한 요건

2) 형식적 참여의 보장으로는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과 시민사회가 거버넌스 행위의 주체들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필요

3)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적 접근은 재난 시기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자하는 시도들을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강화

\* 민/관 거버넌스는 단순히 형식적 거버넌스 시스템 마련만으로 성공할 수 없음. 철저적 민주성, 정보와 소통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성공 가능하고, 행정과 시민 간 거버넌스 구축에 시민사회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시민사회의 역할이 없으면 동원된 거버넌스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 개별 시민단체의 자원과 역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방행정과 대등한 거버넌스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

## V. 나오는 말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도 그에 맞춰 변화될 수밖에 없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는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 익숙해 있던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의 회의, 운동 방식에서 이미 시민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SNS방식의 회의, 운동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이점에서 한국교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교회 구성원 각자의 관심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 영역의 시민운동으로 연결해서 지원도 하고 견제도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한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본다. 또한 (기독교) 시민단체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으로 한국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부문에 대해 의미 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접점이 될 것이다.

사회적 재난 대응시 민/관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시민운동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실질적인 역할을 위한 실제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COVID19 이후 한국사회와 기독교

-문명사적인 전환을 맞이하며-

2020년 5월 5일 작성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생명생태분과장 이박행

김신일 김의신 김정태 김종환 박윤만 이광하 정현구 조성돈

## 산업자본 문명에 대한 성찰

우리는 생명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의 자원수탈적인 지구지배는 삶의 자리인 지구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에 자연파괴는 곧 인간의 위기로 연결된다. 이러한 생명위기는 생태학적 위기에서 직접 초래되었다. 지난 200년 동안 경제적 세계화를 통해 너무나 많은 자원이 낭비, 고갈, 오염되었고, 생물과 종이 멸절되었고, 산림과 초원의 상실이 무섭게 가속화되었다. 이런 반생명적인 현상은 자연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연을 인간의 풍요로움을 위해 착취할 대상으로 간주한 결과이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문화명령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

첫 번째 인류 아담에게 에덴동산은 삶의 터전이자 예배를 드리는 지성소였다. 그곳에서 인류는 금단의 열매를 삼가고, 피조세계의 생명을 아름답게 보존하라는 첫 번째 사명을 창조주께 받았다. 하지만 아담의 교만과 탐욕이 불순종을 낳았고, 그의 아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도시의 화려한 문명을 만들었다. 점차 인류는 도시의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보편적 문화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근·현대사회는 도시와 국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을 해체시켜버리는 제국주의적 방향으로 거침없이 질주해 왔다. 이처럼 세계 문명의 발달사는 또한 자연 수탈의 역사이기도 하다. 석유문명으로 일어난 이 세대는 석유 채굴 산업의 전성기를 지나면서 마침내 지구 종말을 앞당기는 방아쇠를 당기게 되었다.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무분별하게 진행해온 산업화의 결과로 수많은 지구생물들이 이미 멸종되었거나 멸종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던 숲은 점차 사라지고 사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만약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로 계속 배출된다면 50년 안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35억 명이 사하라사막과 같은 기온에서 살게 된다. 급격한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계속 녹고, 남태평양 섬들은 가라앉고 있다.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환경이 더욱 파괴되었으나 대체에너지 개발은 여전히 미흡할 뿐 아니라 심지어 위험한 에너지인 핵에 대한 미련조차 여전히 남아 있다.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은 우리 생활과

몸의 일부가 되었다.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고, 바다 한복판에는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다시 먹이사슬의 악순환을 통해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적 위기는 전 세계 기아인구를 증가시키는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구촌 전체를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결국 우리 시대의 풍요와 안락을 더 지속하기 위해 다음 세대의 몫인 생태환경과 자원들까지 미리 끌어다가 낭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류와 지구 자체의 미래를 스스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가 하나 된 지구촌 시대의 시급한 과제는 ‘공생공존의 삶’이다. 더 나아가 모든 다른 생명체와도 공생해야 하고 무생물하고도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하기에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생명생태’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류를 넘어 모든 생태계가, 지구를 넘어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의 영역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피조세계 전체를 보살피는 청지기임을 믿는다. 그러나 인간은 청지기적 사명을 망각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명령(창 1:28)을 ‘인간 맘대로 해도 좋다’는 탐욕선언으로 착각해왔다. 무분별한 자원낭비와 고갈,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었음에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책임 있게 바로잡지 못했다. 특히 물질주의와 경제만능사상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세계관이 확산된 1990년대 이후에는 더욱 그러했다.

### ‘코로나19 팬더믹’은 최후의 경고장

과도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세계화는 피조세계에 무수한 탄소 발자국을 남겼다. 지구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증후들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국제사회는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급격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의 기후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C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온난화의 주범인 미국은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 2019년 11월 협약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했다. 유럽 몇 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목표수립과 실천의 의무를 뒤로 미루고 있다. 지구 생태계 유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제공조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결국 기후온난화로 지구는 기후 위기 단계를 넘어 지구 멸종단계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금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역습도 기후온난화 위기에 의해 촉발되었다. 전 세계의 생태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듯, 코로나19 상황은 지구 생명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 방어기제를 작동시킨 것이다. 그동안 우리 인류와 교회는 바알 신을 숭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그 되먹임 현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인구가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산업화, 도시화로 잘 살게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개발지상주의와 도시화’에 대항하는 생태계의 저항을 뚜렷하게 목도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파국적 종착점을 코앞에 둔 인류에게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팬더믹’은 지구촌의 주류적 ‘산업문명사회’에게 최후의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지금의 자본적 문명을 성찰하고 삶의 방식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인류는 이런 일을 계속 겪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발생하기 전 우리 인류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5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고 이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추었고 역설적으로 지구는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강제로 주어진 전 지구적인 안식을 통해 우리는 희년이 실현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 모두는 자본이 생명보다 우선하는 물질문명을 돌이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보수교회와 선교계는 ‘생태’ 또는 ‘생명’을 진보와 자유주의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기고, 다원주의를 경계한다는 명목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다. 결과적으로 창조질서 보존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와 목회적(선교적) 적용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 하나의 건강(One Health)을 위하여

이제는 인간의 건강과 동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강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공중보건 전문가, 동물보건 전문가, 식물 전문가, 생태 전문가, 종교인들이 힘을 합쳐 지구 혹성에 함께 거주하는 모든 생명과의 연계성 속에서 인간 건강을 바라보는 ‘하나의 건강’(One Health)을 지향해야 한다. 사람-동물-생태계를 하나로 엮어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건강을 추구하자는 주장은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서 이미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구화 및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더 넓은 맥락에서 사태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잇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대형 감염질환 사태로 인한 모든 피조물의 공생공존이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 규모로 역병이 자주 창궐하면 인간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경제사회적 토대 또한 크게 흔들린다. 만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발본적 차원의 성찰에 나서야 마땅하다. 알다시피 생명권과 건강권은 국가가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 인권이자 국가의 존립 근거가 되는 의무이기도 하다. 지금은 바이러스 사태와 기후변화를 연결할 줄 아는 생태적 상상력이 필수적인 시대이다. 석탄, 석유를 평평 때는 식으로 사

는 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조건의 창은 그만큼 닫히게 되고, 사람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계속 침해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20세기적 시각과 안목, 전통적인 인권관을 갖고는 인권 증진은커녕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방어하지 못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하긴 해도 머지않아 정점을 찍고 차츰 안정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경황이 없지만 사태가 진정된 뒤에는 정말 장기적 안목으로 지구화의 결함 특히 '공공의료보건 시스템과 건강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생명권과 건강권에 폭넓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생명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극복하도록 생명평화담론을 고안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도록 촉진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정치, 경제, 과학, 의료, 문화, 예술, 농촌, 도시 등 제 분야를 창조질서보존 차원에서 분석하여 공공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실천 운동을 함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창조질서에 벗어나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불·난치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한 전인치유선교 운동에도 기여할 여지가 많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의 지구(One Global)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건강(One Health)을 추구해야 한다. 피조세계 안에서 창조주의 질서를 깨닫고, 그 안에서 모든 생명과 더불어 공생 공존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즐겨 받으실 참된 예배일 것이다. 신음하는 지구촌에 참 평화와 안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행동과제>

1. 창조질서보존에 합당한 세계관을 정립하여 하나님 중심의 청지기적 사명을 회복한다.
2.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에 앞장서며, 핵에너지 확대 정책을 반대한다.
3. 대량생산과 소비의 생활방식을 지양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절제의 삶을 실천한다.
4. 개발성장주의를 지양하고 자연생태 보존에 힘쓰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존중한다.
5. 동식물들의 생존조건을 개선하고, 생명이 함께 존중받는 문화조성에 힘쓴다.
6. 창조질서에 순응하는 생활습관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안녕을 향유하도록 한다.

#### <세부실행과제>

1. 분기별로 분과 독서토론회를 하고 생산된 자료를 타 분과와 공유한다.
2. 분과원들 중심으로 생명생태 의식 함양을 위해 환경선교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
3. 생명생태분야의 연구와 나눔을 통해서 교육 자료를 축적한다.
4. 회원교회 및 단체 위주로 환경(전인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용한다.

5.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과 연대하여 '생명신학포럼'을 공동주관한다.
6. 생명생태 운동 관련 단체와 기관들과 대외적으로 연대한다.
7. 생명위기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발표한다.

끝.



# MEMO

# MEMO